



한국과 중남미:

변화하는 세계 속의 발전의 동반자



한국과 중남미:

변화하는 세계 속의 발전의 동반자



발간물 책자 정보

미주개발은행 펠리페 에레라 도서관 제공

한국과 중남미: 변화하는 세계 속의 발전의 동반자m/ Mauricio Mesquita Moreira, Marcelo Dolabella, Mario Saeteros, Pedro da Motta Veiga, Sandra Rios Polonio, 나상근, 김영훈

p. cm. — (IDB Monograph ; 1222)

참고문헌

1. 국제 무역 - 라틴 아메리카. 2. 국제 무역-한국. 3. 상업 정책-라틴 아메리카. 4. 상업 정책-한국.
I. Mesquita Moreira, Mauricio. II. Dolabella, Marcelo. III. Saeteros, Mario. IV. Veiga, Pedro da Motta. V. Rios Polonio, Sandra. VI. 나상근. VII. 김영훈. VIII. 미주 개발 은행. 통합 및 무역 부문. IX. Series.

IDB-MG-1222

Jel 코드: F13, F15, O54, F23, F35, F50.

키워드: 중남미, 한국, 무역, 투자, 협력.

저작권 © 2024 미주개발은행("IDB"). 이 저작물은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 CC BY 3.0 IGO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3.0/igo/legalcode>)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URL 링크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IDB에 대한 적절한 인용표기를 해야 한다.

위 라이선스의 섹션 8에 따라, 해당 라이선스로 인한 분쟁과 관련된 모든 중재는 WIPO 중재 규칙에 따라 진행된다. IDB 저작물의 사용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UNCITRAL 규칙에 따라 중재에 부쳐야 한다. IDB의 이름을 인정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IDB의 로고 사용은 IDB와 사용자 간의 별도의 서면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야 하며, 이 라이선스의 일부로 허가되지 않는다.

URL 링크는 이 라이선스의 필수적인 부분인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저작물에 표현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미주개발은행, 이사회의 견해 또는 그들이 대표하는 국가의 견해를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감사의 말

한국과 중남미: 변화하는 세계 속의 발전의 동반자'는 2024년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한-중남미 무역 및 혁신 포럼을 위해 준비된 문서이다. 이 포럼은 미주개발은행과 한국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한국수출입은행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공동으로 조직했다.

본 보고서는 미주개발은행(IDB) 그룹 내에서 Fabrizio Operti 국장이 이끄는 무역 및 지역통합국(INT)이 주도한 협력의 산물이다. 보고서는 INT의 Mauricio Mesquita Moreira와 Marcelo Dolabella의 책임으로 집필되었다. 각각의 세션에는 다음 저자들이 참여했다: INT의 수석 컨설턴트 Mauricio Mesquita Moreira (섹션 I, 서론), INT의 컨설턴트 Marcelo Dolabella와 Mario Saeteros (섹션 II, 중남미-한국 무역 및 투자 동향), 통합 및 개발 연구센터(CINDES)의 Pedro da Mota Veiga와 Sandra Rios Polonio (섹션 III, 브라질-한국 관계), IDB ORP의 나상근국장, 김영훈국장 (섹션 IV, 협력).

Pablo Steneri, 김백진차장, 임흥기과장, 최성규부장, 이종원차장, 윤세라연구원, María Viquez, Gerardo Funes는 출판물의 제작 및 배포에서 팀을 지원했다. Mauricio Mesquita Moreira는 총괄 편집을 담당했고 곽재성과 민은송은 한국어 버전에 기여했다. María Inés Martiarena는 스페인어 버전에, Hilda Lemos는 포르투갈어 버전에 기여했다. Cleiman이 레이아웃을 디자인했고 The Word Express, Inc.가 그래픽 디자인을 구현했다.

서문

포스트 팬데믹 시기는 한-중남미 비즈니스 관계에 새로운 추동력을 제공했다. 이 기간 동안 무역과 투자는 놀라운 성장을 기록했으며, 이는 양 지역 간의 강화된 유대 관계를 반영한다. 지정학적 긴장, 증가하는 무역 장벽과 보조금, 식량안보와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로 형성된 더욱 변동성이 큰 글로벌 경제의 등장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시한다. 한국과 중남미는 파트너십과 자유무역 및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각자의 강점을 활용하여 더 회복력 있고 상호 연결된 가치사슬을 구축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무역 및 투자에서의 최신 동향을 검토하고, 강화된 다자간 무역 시스템과 경쟁, 노동, 환경 기준에서의 향상된 규범을 통해 식량 및 에너지 안보, 기후 회복력에서 한국과 중남미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잠재력을 강조한다. 한국의 선진화된 혁신 시스템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적용을 통해 중남미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반대로 세계 최대 식량 및 농산물 순 수출국인 중남미는 글로벌 식량 가격을 안정시키고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혁신에 대한 한국의 집중은 경제 변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연구개발(R&D)에 대한 상당한 투자로 한국은 첨단 기술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이 발전은 선진적인 교육 정책, 강력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글로벌 경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확고한 헌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요소는 중남미가 자신의 개발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번영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2005년 한국이 미주개발은행(IDB)에 가입한 이래, IDB는 한-중남미 협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IDB 회원국으로서 20주년을 맞이한 한국의 지원은 중남미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국은 IDB에서 지식공유프로그램(KSP), 한국신탁기금(KTFs), 한국인프라개발협조용자(KIF)의 세 가지 주요 자금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총 10억 6천만 달러 이상의 승인된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한-중남미 파트너십은 강하고 지속적인 관계라는 공유된 비전을 바탕으로 하며, 이는 양 지역 간의 더 깊고 강력한 유대 관계의 기초를 마련해 왔다. 우리는 이 보고서가 2024 한-중남미 무역 및 혁신 포럼의 성공에 기여함과 동시에,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강화할 정책 대안에 대한 건설적인 아이디어 교환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

Fabrizio Operti

무역 및 지역통합 국장

차례

요약	vii
<hr/>	
1. 서론	1
<hr/>	
호황은 끝났다. 이제 어려우면서도 유망한 시기가 온 것이다.	1
짧은 지정학적 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가치사슬을 만든다	2
식량안보 강화의 열매를 거두다.	3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무역	3
디지털 전환의 혜택 공유	4
시장을 넘어: 협력의 힘	5
<hr/>	
2. 한국-중남미 무역 및 투자 흐름: 양자 간 경제협력 강화	6
<hr/>	
상품 무역: 오랜 관계에서의 새로운 발전	6
장벽 제거	11
서비스 무역: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15
변화하는 글로벌 질서 속 외국인직접투자(FDI)	17
<hr/>	
3. 한국-브라질: 오랜 관계를 활용하자	21
<hr/>	
양자 간 상품 무역: 호황은 끝났고 회복이 눈앞에 있는가?	21
양국 간 서비스 무역: 회복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회복탄력성	27
양자 간 직접투자: 견인력을 잃고 있는가?	29
한-MERCOSUR 자유무역 협상: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도구	30
경제 관계를 확대하고 심화할 기회	32
한국-브라질 양자 간 협력	36
<hr/>	

4. 협력의 힘	39
효과성 높은 미주개발은행(IDB)과의 파트너십	40
지식공유프로그램(KSP)	40
상자 4.1지식공유프로그램	41
한국신탁기금(KTFs)	43
한국인프라개발협조융자 (KIF)	44
KSP, KTFs, KIF의 모범 성공 사례	47
한국 기관들과의 파트너십	48
참고문헌	50

요약

- **한국과 중남미의 관계는 전례 없는 국제경제의 협력 기간 동안 변창해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무역 장벽과 보조금의 증가로 세계 경제는 더욱 불안정해졌다.
- **그렇다면 한-중남미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과 중남미는 보다 긴밀한 경제협력을 통해 지정학적, 환경적, 사회적 이슈를 해결을 위한 더할 나위 없는 파트너이며, 무역과 외국인 투자를 성장의 동력으로 유지할 수 있다.
- **이러한 우려를 기회로 전환시켜 양 지역간 파트너십은 무역과 투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2010년 이후로 모멘텀을 잃었지만, 최근에는 무역과 투자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상품 무역은 600억 달러에 근접했으며, 이는 사상 최고치임과 동시에 보다 균형 잡힌 흐름도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 무역은 2021년에 110억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이 또한 다소 침체되었다가 회복되었다.
- **양자 간 투자에서도 유사한 역학이 관찰된다. 상당한 침체 이후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의 지역 내 투자는 2023년에 사상 최고치인 30억 달러에 도달했다.** 이는 한국의 중국 내 투자가 급격히 감소한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중남미가 한국의 가치사슬 재배치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중남미의 한국 내 투자는 여전히 부진하다.
- **이와 같은 (양자 간 협력의) 회복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단순히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세계 경제의 새로운 요구 사항인 가치사슬의 회복력 증가, 식량안보 개선, 원활하고 신속한 에너지 전환 촉진, 디지털 전환 혜택 확대 등에 얼마나 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의 확보가 달려있다.
- **한-중남미 파트너십은 회원국들의 가치사슬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특히 적합하다.**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민주적 가치와 시장 지향 경제에 대한 헌신을 공유한다.
- **전 세계 수출의 17%를 차지하는 중남미는 농식품 가치사슬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특히 적합하다.** 중남미는 이제 한국 농식품 수입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높은 관세를 줄이고 위생검역 조치를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파트너십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 **기후변화 대응은 어떤 국제 파트너십에서도 긴급한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며, 특히 한-중남미에게는 더욱 그렇다.** 중남미의 청정에너지 매트릭스와 주요 광물의 풍부한 매장량은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환경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춘 한국과 완벽하게 맞아 떨어진다. 여전히 높은 관세가 걸림돌이 되는데, 이번에는 중남미 쪽의 관세가 문제다. 예를 들어, MERCOSUR의 환경상품 관세는 최대 8%까지 될 수 있다. 기회는 상품을 훨씬 넘어서 확장된다. 한국의 단위 생산량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중남미 평균보다 세 배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환경 서비스 분야, 특히 탄소배출권 거래의 잠재력은 무한하다.
- **글로벌 경제를 재편하는 다른 트렌드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전환도 기회를 제공한다.** 디지털화로 인한 생산성과 품질 향상, 그리고 새로운 디지털 무역 방식의 무역 기회를 활용하려면, 중남미는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 주요 ICT 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인 한국이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미

그러한 상황이다. ICT 서비스 수출은 2007년 이후 연평균 13% 성장했지만, 상품은 아직 시작 단계다. 평균 6.1%인 중남미의 관세와 양쪽의 디지털 무역 서비스 장벽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 **중남미 최대 경제국이자 5만 명의 한국인이 거주하는 브라질과의 파트너십은 가장 큰 편익을 제공한다.** 무역과 투자의 둔화가 최근 회복의 징후를 보였다. 2023년 상품 무역은 100억 달러로 2010년 정점을 넘지 못했지만, 2021년 이후 브라질의 상당한 양자 적자가 소폭 흑자로 전환되면서 균형이 잡혀가고 있다. 서비스 무역도 다소 둔화되었지만,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1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보다 회복세를 보였다.
- **한국과 중남미 경제의 상호보완성 스펙트럼에서, 브라질은 아마도 최상위에 있을 것이다.** 지정학적, 환경적, 회복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망한 파트너로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식량안보와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천연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한 거대 민주주의 시장 경제이기도 하다. 또한 제조업 생산성을 높이고 디지털 무역 서비스에서 새로운 수출 틈새시장을 탐구하기 위해 ICT 인프라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높은 양자 무역 비용은 여전히 걸림돌이다. 교착 상태에 있는 한-MERCOSUR 자유무역협정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답이 될 것이다.
- **한-중남미 관계의 성공은 항상 시장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제관계에서 정부 간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복잡한 글로벌 경제 문제는 효과적인 정부 개입을 필요로 한다. 정책과 규제의 융합적 접근은 한-중남미 협력에서 최우선 의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 **낙관할 이유가 있다. 한국과 중남미는 강력한 양자, 특혜, 다자간 체계에 의해 뒷받침된 성공적인 정부 간 관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는 주로 무상원조의 형태로 중남미에 대한 꾸준한 한국의 개발 협력으로 이어졌다. 한국의 대 중남미 지원은 일시적인 둔화 후 2022년 역사적인 최고치인 3억 2,100만 달러에 도달했다. 다자간 파트너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3년 현재 10억 6천만 달러 상당의 자금이 IDB를 통해 집행되었다.
- **요약하자면, 한-중남미 파트너십은 새로운 세계 경제의 복잡성을 탐색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식량안보, 청정에너지, 디지털전환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우선시함으로써, 한국과 중남미는 더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정부 간 협력을 새롭게 하고 정책 수렴에 중점을 두는 것이 이러한 기회를 열어주는 데 중요하다. 더 강력한 중남미-한국 파트너십은 양 지역 모두에서 성장과 번영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

1. 서론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LAC, 이하 중남미)과 한국 간의 관계는 확대된 무역과 자본 자유화로 촉진된 전례 없는 국제경제 협력의 시기에 크게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세계화의 황금기에는 지정학적 긴장이 거의 감지되지 않았다. 더 큰 효율성과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회복력, 국가 안보, 환경 및 사회적 문제보다 우선시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세계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사상 최고 수준임을 감안할 때 세계화 종말론이 다소 과장되었지만, WTO 규범을 무시한 무역 장벽과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과 중남미의 관계는 전례 없는 국제경제의 협력 기간 동안 번창해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무역 장벽과 보조금의 증가로 세계 경제는 더욱 불안정해졌다. 지정학적, 환경적, 기술적, 사회적 우려는 그동안 정당화되었던 경제 운영의 효율성 패러다임을 후퇴시켰지만, 이는 덜 바람직한 보호주의적 이익도 정당화시키는 기재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한-중남미 관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정부는 경제통합과 협력 목표를 재고해야 하는가?

간단히 말해, 답은 '아니오'다. 이러한 새로운 우려는 세계경제가 양차 세계대전 사이에 빈곤을 초래한 자급자족 정책으로 돌아갈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으며, 한국과 중남미가 긴밀한 협력 목표를 재고할 충분한 이유도 되지 않는다. 글로벌 관점에서, 경제 분열은 특히 개발도상국에게 매우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며, 새로운 우려를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¹ 한-중남미 양자 간에 경제관계를 공공히하면, 무역과 외국인 투자를 성장 동력으로 유지하면서 지정학적,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다.

본 보고서는 이렇듯 새롭게 부상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배경으로 양자 관계의 최근 무역, 투자 및 협력 동향을 검토한다. 지역 전반 이외에도 한국의 최대 파트너인 브라질과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하여 나머지 국가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핵심 주장은 회복력 있는 가치사슬, 청정에너지, 식량안보 및 기회를 확대시키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요구가 이미 검증된 긴밀한 통합의 당위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전의 호황기 동안 시장이 주도했던 것과는 달리,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

호황은 끝났다. 이제 어려우면서도 유망한 시기가 온 것이다.

한-중남미 무역의 두 자릿수 성장 시기는 지나갔다. 2011년 이후로 정체 of 조짐을 보였다. 원자재 호황의 종말과 2008년 금융 위기, COVID-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일련의 외부 충격은 양측의 경제와 무

¹ IMF (2023).

역에 큰 타격을 주었다. 양자 간 무역도 상대적인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관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중남미가 한국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5.6%의 정점을 찍은 후, 2023년에는 약 4%로 떨어졌다. 한국이 중남미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덜 영향을 받았지만 역시 감소했다. 현재 2%로 정점이었던 2010년 2.5%에 더 가깝다. 서비스 무역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 2000년대 초반 이후 전체 무역의 11% 비중을 거의 유지하고 있다.

다행히도 모든 것이 암울한 것은 아니다. 양자 간 상품 무역은 COVID-19 충격 이후 강하게 반등하여 2022년에 사상 최고치인 650억 달러에 도달했다. 새로운 추세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징후는 긍정적이다. 또 다른 낙관적인 이유는 보다 균형 잡힌 무역으로의 질적 변화다.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중남미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2008년 전체 무역의 50%에 달했던 한국의 양자 무역 흑자가 2023년에는 15%로 감소했다. 이는 무역 장벽을 높이려는 국내 정치적 압력에 덜 영향을 받은 균형 잡힌 관계로 이어진다.

외국인 투자 측면에서도 유사한 둔화 패턴을 보였지만, COVID-19 이후 강한 반등으로 완화되었다. 2023년 이 지역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브라질, 멕시코, 페루를 중심으로 사상 최고치인 30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증가 시점에 한국의 대 중국 투자는 급감하여 중남미가 한국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배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데이터는 이러한 투자가 광업에서 제조업으로의 다각화 추세를 나타내기도 한다. 아쉬운 소식은 투자 흐름이 여전히 매우 일방적이라는 것이다. 중남미의 대 한국 투자는 여전히 미미하여 이 지역이 한국이 줄 수 있는 기회를 아직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희망적일 이유가 있다. 그러나 한-중남미 파트너십이 세계경제의 새로운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진정한 잠재력을 확인하기 위해선 더 멀리 내다봐야 한다. 혜택은 가치사슬의 회복력 증가, 식량안보 개선, 원활하고 신속한 에너지 전환 촉진, 디지털 변혁의 혜택에서 특히 더 분명할 가능성이 크다.

짧은 지정학적 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가치사슬을 만든다

회복력의 개념은 극한 기후현상, 식량안보, 이제는 지정학적 고려 사항을 포함하는 다면적 개념이 되었다. 정부가 어떤 이슈를 우선시하든 국경을 개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하다. 국경을 개방하여 국가, 기업, 소비자는 국내외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한 수요 및 공급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각화는 이러한 상황에 덜 노출된 (비 전통적) 파트너를 포함할 때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한-중남미 파트너십은 특히 요즘 정부의 주요 관심사인 지정학적 차원에서 이러한 설명에 잘 들어맞는다. 양 지역의 파트너십은 대체로 민주적 가치와 시장경제에 대한 확신도 공유한다. 기존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주의와 지정학적 근접성은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줄여 무역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²

² Cevik (2024).

식량안보 강화의 열매를 거두다.

중남미는 최근 극한 기후현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글로벌 식량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세계 최대 식량 및 농산물 순수출국으로서 중남미는 세계 수출의 17%를 담당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농업 지역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상당한 규모의 미개발 농지와 담수를 보유하고 있다. 이 엄청난 잠재력은 국제 식량 가격을 안정시키고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한국과 그 밖의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이 잠재력은 이미 무역 흐름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다.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중남미 농식품 제품의 대 한국 수출은 지난 4년간 연평균 20% 성장했다. 이는 이제 한국의 전체 상품 수입의 16%를 차지한다. 이 성과는 중남미가 직면한 부당하게 높은 무역 장벽을 고려할 때 더욱 인상적이다. 중남미 농식품 수출에 대한 한국의 평균 관세는 60%에 이른다. 높은 관세와 엄격한 위생검역(SPS) 조치를 극복하는 것이 각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무역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는 어떤 국제 파트너십에서도 긴급한 우선 과제이다. 한-중남미 파트너십은 이 점에서 특히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중남미는 세계에서 가장 청정한 에너지 매트릭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율이 약 30%로 세계 평균인 14%보다 훨씬 높다. 이 지역은 또한 청정에너지 기술을 위한 광물 공급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구리(칠레, 페루), 리튬(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니켈(브라질, 콜롬비아, 과테말라), 실리콘 및 희토류 금속(브라질) 등에 있어 세계 최대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철강과 같은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중남미의 청정에너지는 대량의 청정 전력을 필요로 하는 수소와 같은 탄소제로 연료를 더 비용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한다.

반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4%에 불과하며, 주요 광물 자원이 제한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은 태양광 패널, 리튬 배터리, 전기차 생산과 같은 청정에너지 가치사슬의 여러 부문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재생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크게 촉진할 수 있다. 양측의 강점을 고려할 때 명확한 시너지가 나타나며, 이는 청정에너지 기술 및 광물에 대한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 및 투자 기회를 무궁무진하게 창출한다.

농식품 무역의 도전과 유사하게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는 한-중남미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장애물이 된다. 예를 들어, 브라질과 MERCOSUR 국가들이 수출하는 이러한 상품에 대한 관세는 최대 8%에 달할 수 있다. 이러한 장벽을 줄이면 환경상품 및 주요 광물의 양자 간 무역을 크게 촉진할 수 있으며, 이 부문은 2022년에 68억 달러에 도달했으나, 앞으로도 상당한 성장이 가능하다.

기회는 상품 무역을 넘어 확장된다. 한국의 단위 생산량당 CO2 배출량이 중남미 평균보다 세 배 더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환경 서비스, 특히 탄소 배출권 거래에서의 잠재력은 더욱 유망하다.³ 한국이 중남미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면 완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중남미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다. 브라질만 해도 세계 전체 산림 면적의 약 5.5%에 해당하는 5천만 헥타르의 산림을 복원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⁴ 이 복원 노력은 거래를 위한 상당한 탄소 상쇄를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기회를 인식한 한국 정부는 이미 페루, 칠레, 코스타리카와 이 분야의 협력 협정에 대해 협상 중이다.⁵

디지털 전환의 혜택 공유

세계경제를 재편하는 다른 요인들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전환(디지털 플랫폼, 첨단 로봇,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및 3D 프린팅과 같은 기술을 포함)은 개발도상국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상당한 불안을 야기했다. 이러한 기술이 저숙련, 노동집약적 상품 및 업무에서의 비교우위를 해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⁶

그러나 디지털 전환은 개발도상국에게 더 복잡한 그림을 제시한다. 저숙련 노동에서의 이점을 방해할 수 있지만, 개선의 기회도 제공한다. 예를 들어, AI 기반 품질 관리 시스템과 같은 기술은 제품의 품질과 일관성을 향상시켜 노동비용에 있어 저임금의 이점을 상쇄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화는 물류, 규제, 정보 관련 무역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로 전송된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무역 형태의 등장은 이러한 감소에 더욱 기여한다.

이 상황은 한-중남미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디지털 전환의 무역 및 투자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에서 중남미는 한국 및 다른 고소득 국가들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다. 기후 변화 문제와 유사하게,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는 중남미의 디지털 전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역은 여전히 저조한 상태로, 중남미의 한국 ICT 상품 수입은 지난 4년간 연평균 1.2% 감소했다. 긍정적인 소식은 중남미의 한국 ICT 서비스 수입이 2007년 이후 연평균 13% 증가했으며, 이는 특히 한국의 전문 지식에 대한 강한 수요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것이다.⁷

ICT 무역을 더욱 증진시키려면 상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양측 모두 평균 4%로 낮추고, 비용을 줄이며, 디지털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규제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 한국과 상당수 중남미 국가들은 국경 간 데이터 흐름, 온라인 콘텐츠 이용과 거래, 기술 및 시장 접근 장벽에 이르는 디지털 거래 서비스에 대한 장벽에서 세계 평균을 상회한다.

3 IEA data.

4 Bastin et al. (2019).

5 Quantum Commodity Intelligence (2024).

6 Mesquita Moreira et al. (2022a).

7 Mesquita Moreira and Stein (2019).

시장을 넘어: 협력의 힘

한-중남미 관계의 성공은 항상 시장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계에서 정부 간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지정학적 긴장, 식량안보 문제, 보건 위기, 기후변화 등 복잡한 글로벌 경제의 도전 과제들은 시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도전 과제들은 무역과 투자 기회를 창출하며, 이는 해결책의 일부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개인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다르게 나타나는 외부효과를 수반한다. 이러한 차이는 정부의 개입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공통 정책 및 규제에 대한 협력 없이 이러한 개입은 무역, 투자 및 전반적인 부의 창출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남미-한국 협력 의제는 환경, 식품 안전, 보건 의료,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와 같은 주요 분야에서 정책 및 규제의 일치를 우선시해야 한다. 이러한 분야에서의 진전없이 새로운 세계 경제에서 양 지역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활용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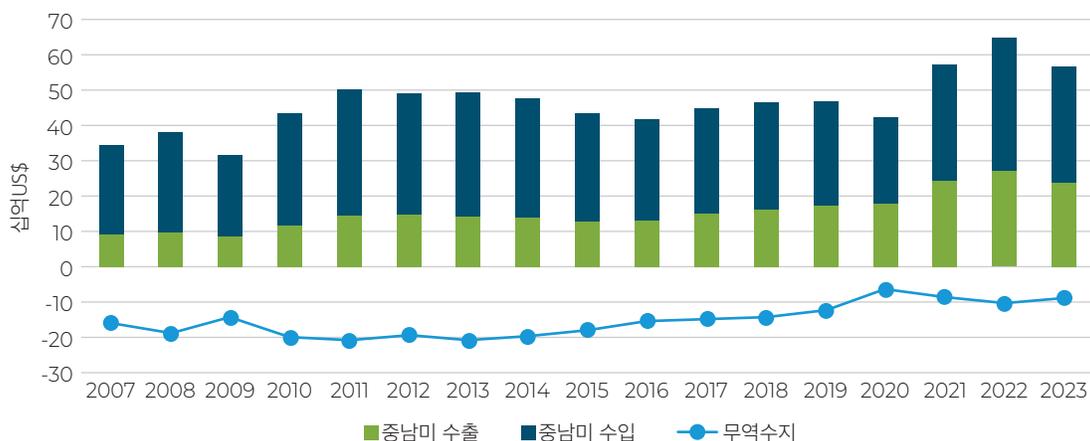
다행히도 낙관할 이유가 있다. 중남미와 한국은 강력한 양자, 특혜 및 다자적 체계에 의해 뒷받침된 성공적인 정부 간 관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는 주로 보조금 형태로 중남미에 대한 꾸준한 한국의 개발 지원으로 이어졌다. 이 지원은 잠시 주춤한 후 2022년에 3억 2100만 달러라는 역사적 최고치에 도달했다. 다자간 파트너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상당한 금액(10억 6천만 달러)이 IDB를 통해 유입되었다.

2. 한국-중남미 무역 및 투자 흐름: 양자 간 경제협력 강화

상품 무역: 오랜 관계에서의 새로운 발전

중남미와 한국 간의 무역 관계는 시기적으로 네 장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 세 장은 잘 알려져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후 한국 전쟁과 그 후의 보호주의 정책으로 인해 양 지역간 교류가 거의 없었다. 다음 기간에서는 1990년대 무역자유화 이후 무역 흐름이 눈부시게 (불균형하게) 확장되었다. 2010년대 들어 이러한 모멘텀이 둔화되었고, 양국 간 무역은 보다 균형이 잡히게 되었다. 네 번째이자 현재의 기간은 팬데믹 이후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무역 흐름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에는 약 650억 달러가 교환되며 새로운 정점을 기록했다 ([그림 2.1]). 이 새로운 모멘텀이 지속가능할지는 아직 말하기 이르지만, 기회는 넘쳐난다. 불안정한 세계 경제의 새로운 요구는 강력한 파트너십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제공한다. 하지만 정부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 그림 2.1
한국-중남미 간 무역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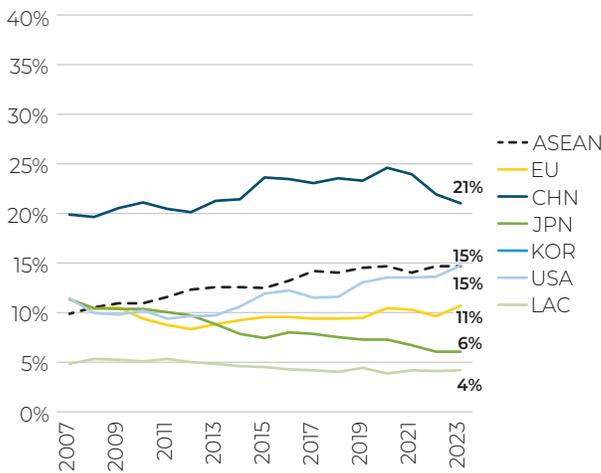
Source: IDB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with data from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DOTS).
참조: 수출입은 26개 중남미 국가 보고에 따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회복은 경제관계를 붕 시절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했으며, 그 당시에도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 중남미가 한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로 여전히 2010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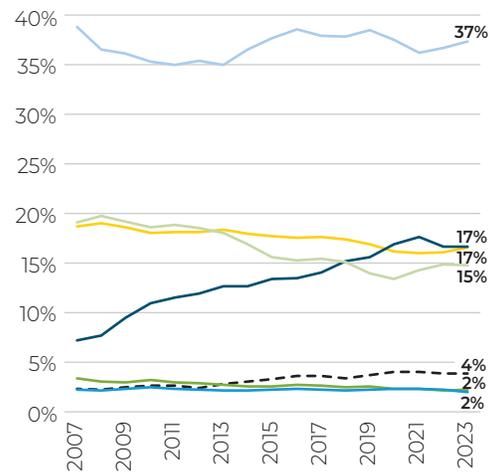
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림 2.2], 패널 A). 다른 아시아 경제와 미국의 중요성이 증가했으며, 이는 특히 일본과, 최근 중국과의 무역 감소에 힘입은 바 크다.

그림 2.2
한국과 중남미의 주요 무역 파트너

A. 한국 전체 무역 내 비율



B. 중남미 전체 무역 내 비율



Source: IDB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with data from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DOTS).
참조: 수출입은 각 한국 (패널 A), 26개 중남미 국가 (패널 B)보고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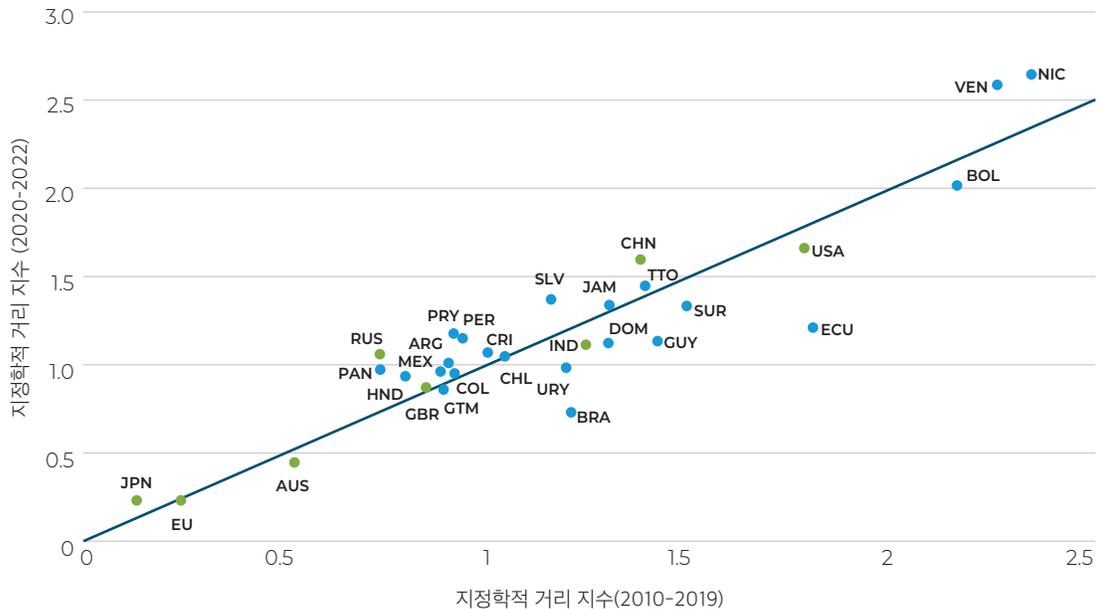
비슷한 패턴이 한국이 중남미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에서도 나타나며, 2%로 여전히 2010년의 미미한 정점 아래에 머물러 있다([그림 2.2], 패널 B). 미국은 여전히 중남미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남아 있으며, 2023년에는 3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주로 멕시코와의 대규모 국경 무역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중남미 내 및 EU 무역의 비율은 다른 아시아 파트너, 특히 ASEAN과 중국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치에서 희망적인 신호가 보인다. 한국과 중남미에서 최근 중국의 시장 점유율 감소는 양측이 더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가치사슬을 찾으면서 양자 간 무역 및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들의 지리적 근접성은 분명히 도움이 된다.

전체적인 무역량이 큰 그림을 보여주지만, [그림 2.4]를 자세히 보면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무역은 몇몇 주요국에 집중되어 있다. 멕시코, 칠레,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는 2023년 한국으로의 수입의 88%와 수출의 89%를 차지했다. 멕시코는 한국으로부터 중남미 총수입의 63%를 차지하며 대부분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다른 주요 파트너인 칠레,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는 2023년에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양자 간 무역 성과도 크게 다르다. 멕시코는 2018년 이후 양자 간 수입과 수출이 각각 17%와 45% 증가했다. 반면, 칠레, 브라질, 페루는 같은 기간 동안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했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소국

■ 그림 2.3

한국과의 지정학적 거리: 중남미 및 일부 국가 (2010년-2022년)



Source: IDB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with data from Voeten et al. (2009), [UN General Assembly Voting Data](#), [Harvard Dataverse, V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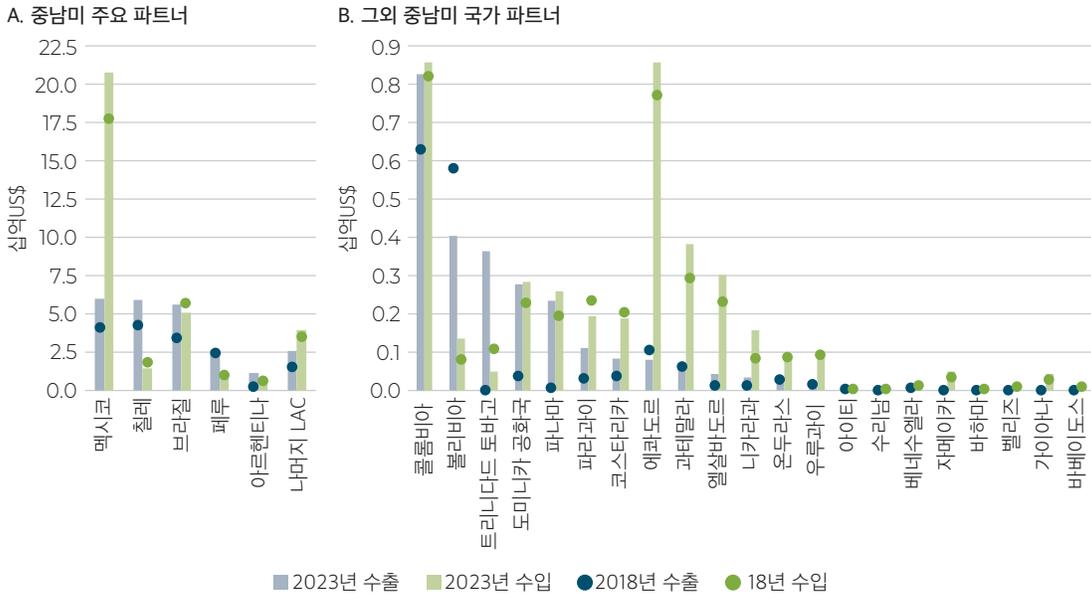
참조: 지수가 낮을수록 지정학적 거리가 더 가까움을 나타냄. 각 기간에 대한 평균은 각 국가의 UN 세션을 기준으로 계산했음. EU의 값은 EU27 회원국 전체의 평균을 나타냄. 대각선 아래의 값은 최근 한국과 더 가까워진 국가들을 나타냄. 중남미 국가 중 일부 선택된 국가들은 파란색으로 표시했음.

의 경우, 한국이 그들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역 평균보다 훨씬 높다. 예를 들어, 파나마, 트리니다드 토바고, 볼리비아는 각각 6.9%, 4.7%, 3.7%의 상품을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또한, 에콰도르 수입의 2.8%는 한국에서 온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과 중남미 간의 양자 무역 구성은 양 지역 간의 잘 알려진 상호 보완성을 반영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기술 및 제조 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한국은 공산품 및 가공 상품의 중요한 공급자였으며, 천연자원이 풍부한 중남미는 역사적으로 농산물 및 에너지 원자재를 아시아 파트너에게 공급해왔다. [표 2.1]과 [표 2.2]는 주요 무역 품목을 요약한 것이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상위 10개 품목이 무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한국의 대 중남미 수출의 40.8%, 중남미의 대 한국 수출의 57.5%를 차지한다. 한국의 수출품은 주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전자 집적 회로, 휴대전화 등 공산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외로 정제유가 있는데, 주로 에콰도르가 수입한다. 또한, 일부 한국 제품은 중남미에서 핵심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로의 한국산 철강제품 수출 성장세는 대 세계 수출의 성장 속도를 상회한다.

■ 그림 2.4
중남미-한국 간 양자 간 무역 현황



Source: IDB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with data from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DOTS).
참조: 수출입은 26개 중남미 국가 보고에 따름.

중남미의 한국 수출은 최근 부상한 새로운 품목인 핵심광물에서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중남미의 방대한 자원과 한국의 경제 탈탄소화 추진을 반영한다. 전기차 배터리에 주로 사용되는 탄산리튬과 수산화물과 같은 일부 광물은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중남미는 이러한 광물의 주요 공급처가 되어 한국에 탄산리튬(80%), 몰리브덴(66%), 아연(64%), 납(59%), 전기동(54%)과 구리(37%)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의 대 중남미 수출도 이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2년에는 30억 달러 상당의 '환경상품'을 수출했으며, 여기에는 자전거와 전기차 같은 최종 상품뿐만 아니라 전기 제어용 보드와 정류기 같은 중간재도 포함되었다.⁸ 이러한 상품의 수출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2%의 완만한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전기차(68.1%), 감광성 반도체 장치(15.7%), 전력용 정류기(13.6%)와 같은 몇 가지 품목에서 매우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이 교역은 중남미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윈-윈 상황은 농식품과 같은 타 핵심 공급망 상품교역에서도 분명하다([그림 2.5] 및 [표 2.3])⁹. 중남미는 세계 최대의 농식품 순수출국으로, 전 세계 수출의 17%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8 '환경상품' 목록은 CLEG(환경상품 통합 목록)에 해당하며, Garsous(2019)를 참고하라.
9 "청정 에너지", "중요 광물 및 자재", "공중 보건" 및 "ICT" 등의 제품목록은 미국 국제무역국(2021) 중요 공급망에 대한 목록 초안에서 인용했고, "농식품 부문"은 농산물의 WTO 정의를 의미하며, HS코드 1-24장(어류 및 수산물, 330210; 약취 유발 물질 제외)을 포함한다. "광물(화석 연료)"는 27장 전기 에너지, 271600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아연 광석은 "청정 에너지" 및 "중요 광물 및 재료" 목록에 포함되는 등 하나의 제품이 여러 제품 그룹에 속할 수 있다.

■ 표 2.1
한국의 대 중남미 수출 (2023년)

2023 순위 (2018)	HS4	품목	대 중남미 수출	전체 수출 내 점유율	대 중남미 수출에 따른 5 년간 CAGR	전체 수출에 따른 5년간 CAGR	한국 수출 중 중남미로 가는 비율	주요 파트너
1 (▲2)	8708	모터 차량 부품 및 액세서리	2.25	9.5%	-1.4%	-0.1%	11.6%	멕시코 (63%), 브라질 (24%), 칠레 (2%)
2 (▲3)	8703	자동차 및 기타 모터 차량	1.58	6.7%	-7.0%	12.3%	2.3%	멕시코 (29%), 칠레 (17%), 도미니카 공화국 (8%)
3 (▲5)	7210	철제품, 도금 또는 코팅된 제품	1.18	5.0%	2.0%	0.9%	17.4%	멕시코 (84%), 브라질 (7%), 콜롬비아 (2%)
4 (=4)	8542	전자 집적 회로	1.11	4.7%	-4.9%	-4.7%	1.3%	브라질 (77%), 멕시코 (23%), 코스타리카 (0.03%)
5 (▲7)	2710	석유 오일 (원유 제외)	0.94	4.0%	5.9%	2.6%	1.8%	에콰도르 (40%), 칠레 (21%), 멕시코 (14%)
6 (▲9)	8517- 8524	휴대전화, 네트워크 장치 및 평판 디스플레이 (터치 스크린 유무 무관)	0.72	3.0%	5.8%	11.2%	3.0%	멕시코 (83%), 브라질 (12%), 콜롬비아 (2%)
7 (▲18)	7208	철제품 (열간압연)	0.54	2.3%	15.0%	4.6%	8.2%	멕시코 (64%), 칠레 (12%), 브라질 (10%)
8 (▼1)	8901	크루즈선, 화물선, 페리 보트 및 선박	0.47	2.0%	-33.0%	1.1%	2.8%	파나마 (71%), 바하마 (29%)
9 (▲15)	7209	철제품 (냉간압연)	0.43	1.8%	7.5%	1.0%	16.4%	멕시코 (90%), 콜롬비아 (5%), 브라질 (4%)
10 (▲23)	8414	펌프, 압축기, 팬 및 관련 제품	0.43	1.8%	15.5%	2.8%	12.6%	멕시코 (92%), 브라질 (6%), 아르헨티나 (1%)
총계			9.65	40.8%				

Source: IDB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with data from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KCTDI).

참조: CAGR는 연평균 복합 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을 의미하며, HS4는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 분류 코드4자리 (Harmonized System 4 Digit)를 뜻한다.

반영되어, 2022년에 6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중남미로부터의 수입은 한국 농식품 수입의 16.1%를 차지하며, 2018년 이후 연평균 2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공중보건의 핵심 분야에서 한국은 중남미에 중요한 공급자로서 각각 25억 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의료기기 및 용품, 테스트 및 진단장비를 포함한 공중보건 제품의 수출은 특히 역동적인데, 팬데믹 기간 동안 새롭게 구축된 파트너십에 힘입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4.7% 성장

■ 표 2.2
중남미의 대 한국 수출 (2023년)

2023 순위 (2018)	HS4	품목	중남미 수입 비율	전체 수입 내 점유율	대 중남미 수입에 따른 5 년간 CAGR	전체 수입에 따른 5년간 CAGR	한국 수입 중 중남미에서 오는 비율	주요 파트너
(1=) 1	2709	원유	4.10	13.8%	14.3%	1.4%	4.8%	멕시코 (59%), 브라질 (38%), 에콰도르 (3%)
(12▲) 2	2836	탄산염 (리튬 탄산염)	2.21	7.4%	41.7%	30.6%	79.7%	칠레 (95%), 아르헨티나 (5%), 멕시코 (0.05%)
(3▼) 3	2603	구리 광석 및 농축물	2.18	7.3%	0.9%	7.5%	37.3%	칠레 (51%), 페루 (32%), 파나마 (12%)
(13▲) 4	1005	메이즈 (옥수수)	2.10	7.1%	40.5%	10.7%	59.4%	브라질 (51%), 아르헨티나 (43%), 파라과이 (6%)
(4▼) 5	2601	철 광석 및 농축물	1.28	4.3%	3.7%	8.4%	15.8%	브라질 (85%), 칠레 (15%)
(6=) 6	7403	정제 구리 및 구리 합금 (원가공품)	1.24	4.2%	7.0%	3.9%	54.2%	칠레 (96%), 페루 (4%)
(3▼) 7	2608	아연 광석 및 농축물	1.13	3.8%	-0.4%	-3.8%	63.9%	멕시코 (42%), 볼리비아 (27%), 페루 (25%)
(36▲) 8	2825	금속 산화물, 수산화물, 과산화물 (리튬)	1.09	3.7%	60.1%	71.6%	10.3%	칠레 (99%), 브라질 (0.7%)
(5▼) 9	2607	납 광석 및 농축물	0.89	3.0%	-1.6%	0.1%	58.5%	페루 (43%), 멕시코 (39%), 볼리비아 (16%)
(11▲) 10	2613	몰리브덴 광석 및 농축물.	0.84	2.8%	10.4%	15.6%	65.7%	칠레 (55%), 멕시코 (37%), 페루 (8%)
총계			17.07	57.5%				

Source: IDB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with data from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KCTDI).
참조: CAGR는 연평균 복합 성장률 (Compound Annual Growth Rate) 을 의미하며, HS4는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 분류 코드4자리 (Harmonized System 4 Digit)를 뜻한다.

했다. 반면, ICT 제품의 수출은 최근 4년 동안 연평균 1.2% 감소하는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중남미에 이러한 제품을 공급하는 주요 국가로, 중남미 수입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장벽 제거

계속 상승하고 있는 높은 무역 비용을 줄이는 것은 한-중남미 무역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이다.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높은 관세는 특히 비용 상승요인이며, 국내 식료품 가격을 상승시킨다. 이러한 관세는 칠레, 페루, 콜롬비아 및 일부 중미 국가와 같이 한국과 특혜무역협정(PTA)을 체결한 국가들을 포함하여 모든 중남미 국가의 수출에 피해를 준다([그림 2.6], 패널 A 참조).

■ **그림 2.5**
일부 제품군별 중남미와 한국의 무역수지



Source: IDB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with data from BACI
참조: 무역수지는 중남미의 대 한국 수출에서 수입을 뺀 값으로 정의함. 제품 구성에 대한 세부 사항은 10번 주석 참조.

중남미 측에서는, 특히 MERCOSUR와 카리브해 지역의 주요 중남미 경제 국가들이 환경, ICT 및 공공보건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면 지역의 의료 부담, 기후변화 완화 및 감소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다.

한-중남미 간의 무역협정(PA)의 혜택은 칠레, 페루, 콜롬비아, 중앙아메리카와의 관세 인하에 명백히 드러난다. 최근에는 한-중남미 자유무역 네트워크가 확장되어 과테말라와 에콰도르가 그룹에 합류했다. 과테말라는 한-중미 PA에 가입했고, 한-에콰도르 PA는 현재 승인 과정에 있다. 한국은 또한 MERCOSUR와 멕시코와의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협정들은 단순히 관세 인하를 위한 수단뿐만 아니라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 촉진과 및 노동 이슈의 협력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이기도 하다.

무역원활화 노력을 통해 무역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도 있다. 한국은 WTO 무역원활화협정을 완전히 충족했지만, 중남미는 현재 요구사항의 79.8%만 실행한 상태이다.¹⁰ 중남미 내에서는 카리브가 67.8%로 가장 뒤쳐지고 있으며, 중앙아메리카가 98.1%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중남미에서 무역원활화를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접근법 중 하나는 IDB의 지원을 받은 ‘중앙아메리카 무역원활화 및 경쟁력 강화 전략’ 하에 개발된 중앙아메리카 무역 디지털 플랫폼이다.¹¹ 이 플랫폼은 중미경제

¹⁰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Database (2024).

¹¹ Central American Trade Facilitation and Competitiveness Strategy.

■ 표 2.3

일부 제품군별 중남미-한국 간 무역 역학

분야	2022 중남미 수출 US\$ (10억)	2022 중남미 수입 US\$ (10억)	2022 무역수지 US\$ (10억)	중남미 수출 변동 US\$ (10억) (2018년부터 4년간 CAGR)	중남미 수입 변동 US\$ (10억) (2018년부터 4년간 CAGR)	한국 수입 중 중남미 원산지의 비율	중남미 수입 중 한국 원산지의 비율	한국의 중남미 수출 비율	중남미의 한국 수출 비율
광물 (화석) 연료	6.6	0.2	6.4	3.90 (24.7%)	0.16 (43.3%)	3.8%	0.2%	5.2%	4.1%
농수산물	6.1	0.1	6.0	3.16 (20%)	0.05 (9.9%)	16.1%	0.1%	1.6%	1.8%
청정에너지	7.0	3.2	3.8	1.44 (5.9%)	0.49 (4.3%)	7.6%	1.9%	3.9%	3.4%
중요 광물 및 재료	3.2	0.2	3.0	1.44 (16.2%)	0.06 (8.7%)	10.0%	0.9%	1.2%	8.1%
환경상품	0.4	3.0	-2.6	0.09 (6.1%)	0.15 (1.2%)	1.0%	2.6%	5.7%	0.6%
공공보건	1.1	3.7	-2.6	0.35 (10.4%)	1.57 (14.7%)	1.7%	2.4%	3.8%	1.6%
정보통신기술	0.7	4.4	-3.7	0.08 (3.1%)	-0.21 (-1.2%)	0.4%	2.4%	1.9%	0.6%

Source: IDB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with data from BACI.

참조: CAGR는 연평균 복합 성장률 (Compound Annual Growth Rate) 을 의미함. 제품 구성에 대한 세부 사항은 10번 주석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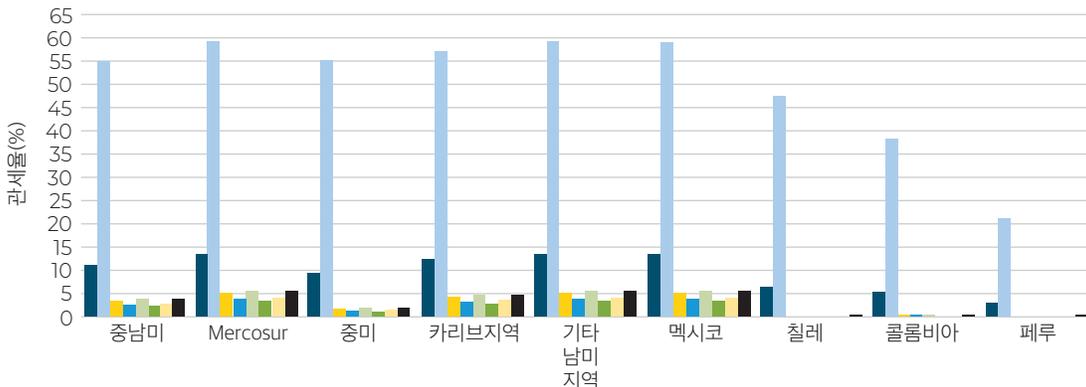
통합사무국(SIECA)이 운영하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증명서와 같은 문서의 전자 전송을 통해 국경에서 물리적 서류없이 무역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러한 성공 사례는 고무적이지만, 중남미와 선진 경제권 간의 무역원활화 면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작업이 남아 있으며, 특히 내외국 국경 당국 간 협력 증진이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는 2022년 OECD 무역원활화 지수([그림 2.7])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그림 2.6

중남미-한국 적용 관세율 (2022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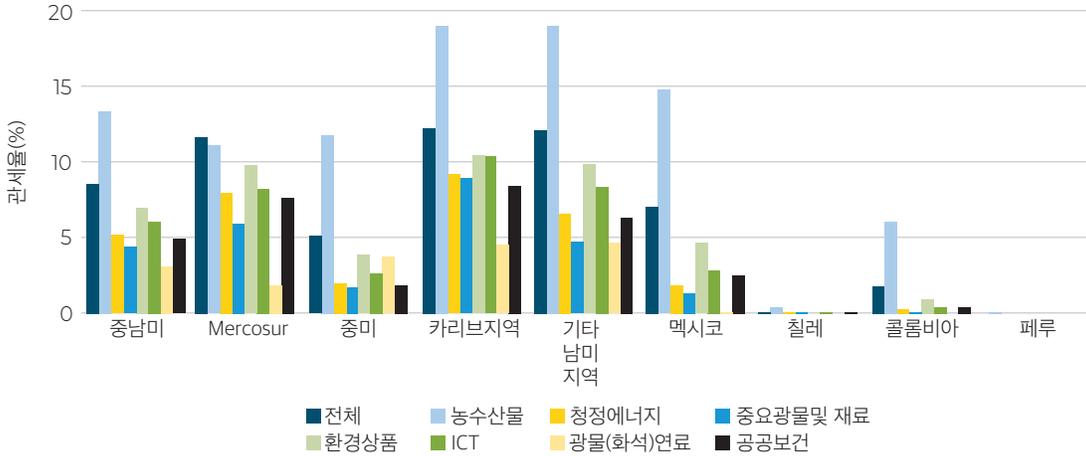
A. 중남미 수출품에 대한 한국 관세율 (%)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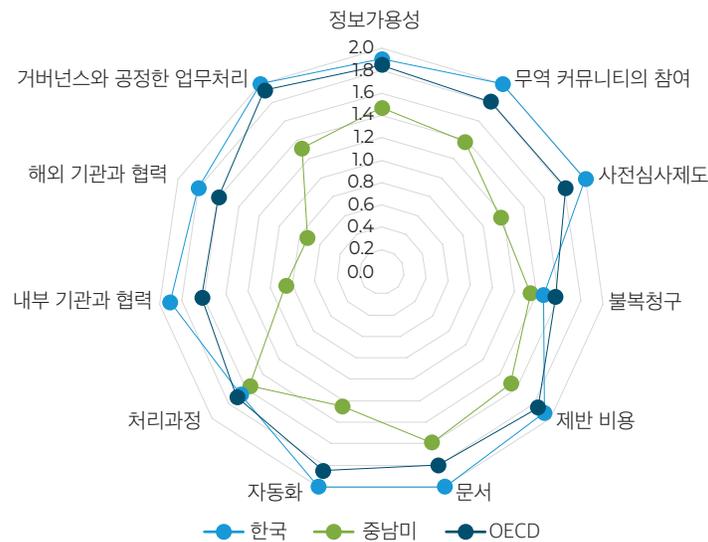
■ **그림 2.6 (계속)**
중남미-한국 적용 관세율 (2022년, %)

B. 한국 수출품에 대한 중남미 관세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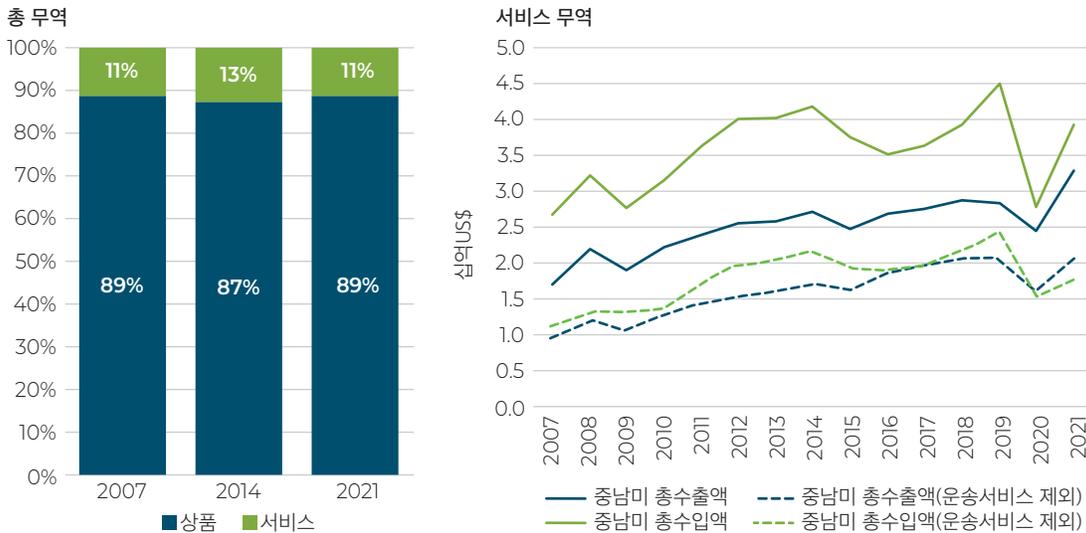
Source: IDB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with data from ITC MacMap.
참조: 국가 그룹 관세는 각 회원국간의 평균 단순 관세로, 대부분 2022년 기준임. 예외 사항은 파나마 (2013년), 바하마 (2018년), 아이티 (2020년), 그리고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자메이카,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우루과이 (2021년)이 부과한 관세임. 제품 구성에 대한 세부 사항은 10번 주석 참조.

■ **그림 2.7**
무역원활화 지수 (2022년)



Source: IDB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with data from the OECD's Trade Facilitation Index.
참조: 무역원활화 지수 (The Trade Facilitation Index, TFI)는 0에서 2 사이의 값을 가지며, 2는 달성할 수 있는 최상의 성과를 나타냄. 이 지수는 해당 국가들의 규제 프레임워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역촉진 조치의 시행 상태를 반영함.

■ **그림 2.8**
한국-중남미 간 재화 및 서비스 양자 간 무역



Source: IDB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with data from BaTIS (Balanced Trade in Services Dataset) and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DOTS).
참조: 상품에 대한 수출입 데이터는 26개 중남미 국가 보고에 따름.

서비스 무역: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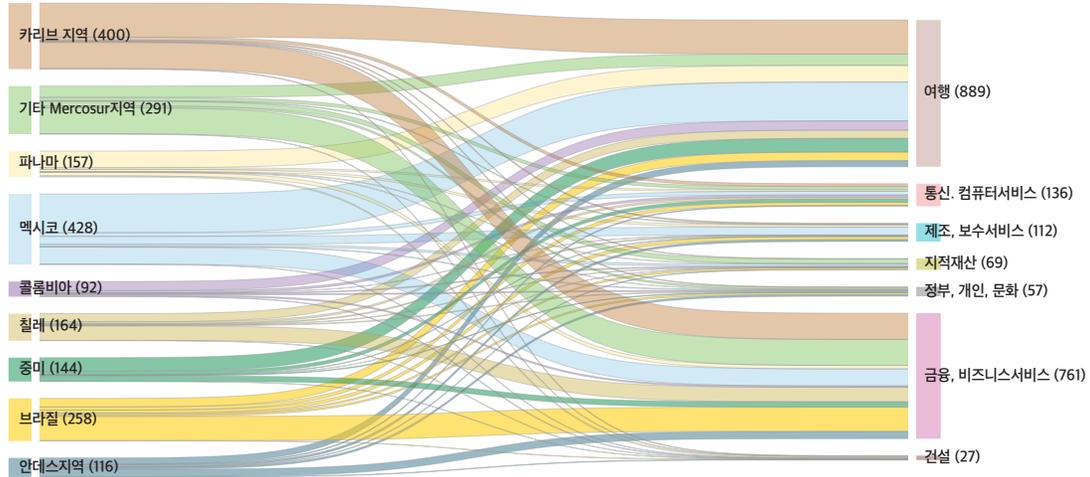
한-중남미 서비스 무역은 양 지역간 무역의 11%를 차지한다. 이 비중은 지난 14년간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으며, 한국은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해운 및 항공 운송을 제외한 서비스 무역은 양쪽 간에 훨씬 더 균형 잡힌 상태다([그림 2.8]).

해운 및 항공 운송을 제외한 서비스 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보인다. 먼저 중남미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은 주로 두 가지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여행과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이다. 특히 멕시코와 카리브가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국별로 보면 서비스 수출은 중남미 국가 전체에 상대적으로 잘 분포되어 있다([그림 2.9], A 패널). 한편 한국에서 중남미로의 서비스 수출은 다른 패턴을 보인다. 주로 브라질과 멕시코의 두 나라에 63%가 집중되어 있다. 금융 및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가 주요 수출품목으로, 지적재산권(IPR)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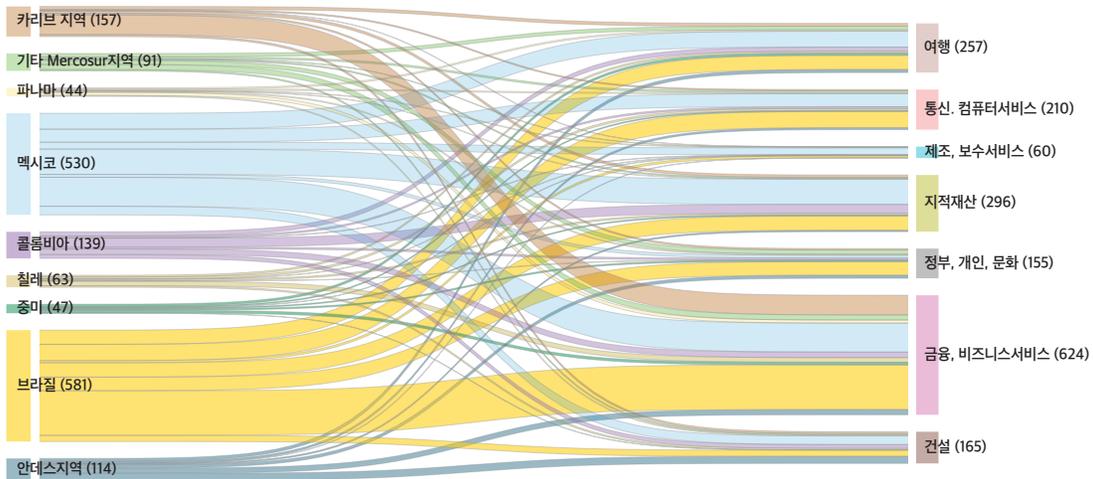
이러한 대규모 지적재산권(IPR) 수출은 세계적인 혁신 허브로서 한국의 위상을 반영한다. 한국의 특허 출원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 총 출원의 6.8%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중남미에서 한국은 1만 4천 건의 특허를 출원했는데, 이 중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브라질(54%)과 멕시코(34%)이다.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는 나머지 8%를 차지한다([그림 2.10]에 특허의 분야가 나와있다). 반면, 같은 기간 중남미 모든 국가들이 한국에 출원한 특허는 1,600건이다.

■ **그림 2.9**
한국-중남미 간 서비스 무역 구성 (2021년)

한국으로의 중남미 서비스 수출 (운송 제외)



중남미로의 한국 서비스 수출 (운송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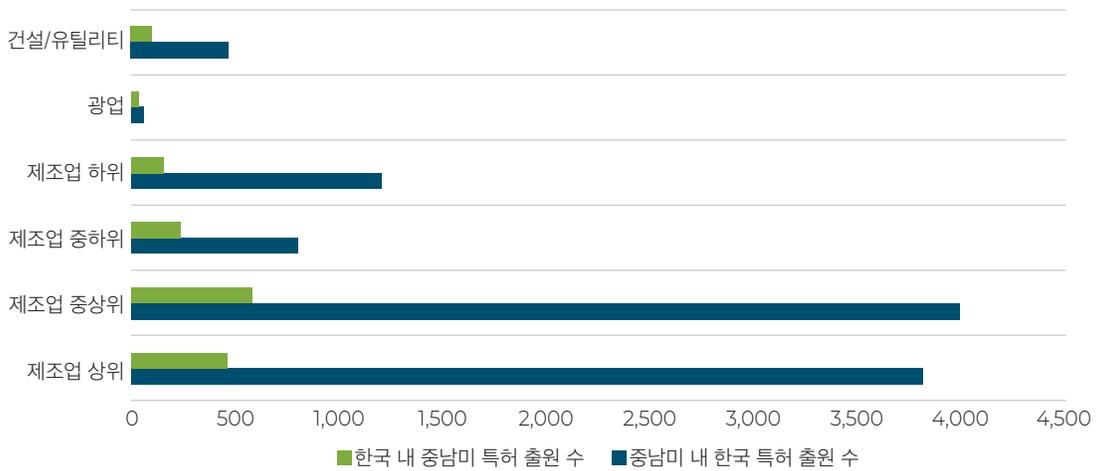
Source: IDB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with data from BaTIS (Balanced Trade in Services Dataset).
괄호 안 수치: 백만US\$.

국제 특허는 일반적으로 기술혁신을 반영하며, 디지털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혁신 허브로서 한국의 선도적 역할은 두 경제 간 디지털 경쟁력의 뚜렷한 차이를 드러낸다. IMD 디지털 경쟁력 랭킹에서 한국은 6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고 순위의 중남미 국가인 칠레는 42위를 차지하고 있다.¹² 이 격차는 디지털 서비스에도 이어지며, 중남미에 대한 무역 장벽이 여전히 핵심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그림 2.11]). 대다수

12 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2023.

의 중남미 기업은 인프라 및 디지털 연결성 문제를 고려할 때 힘든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디지털 서비스의 무역 장벽을 없애면, 중남미 국가들은 혁신을 촉진하고 무역을 확대시키며, 궁극적으로 디지털 경쟁력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 **그림 2.10**
분야별 한-중남미 양자 간 국경 간 특허 출원 건수 (2000년-2019년)



Source: IDB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with data from the INPACT-S database (LaBelle et al., 2023).
 참조: 제조업 분야는 OECD 기술 분류를 사용하여 R&D 기술 강도에 따라 분류함. INPACT-S 데이터베이스는 ISIC Rev 3의 2자리 코드를 기준으로 하는 31개의 산업 분류를 포함하며, 농업 및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를 포함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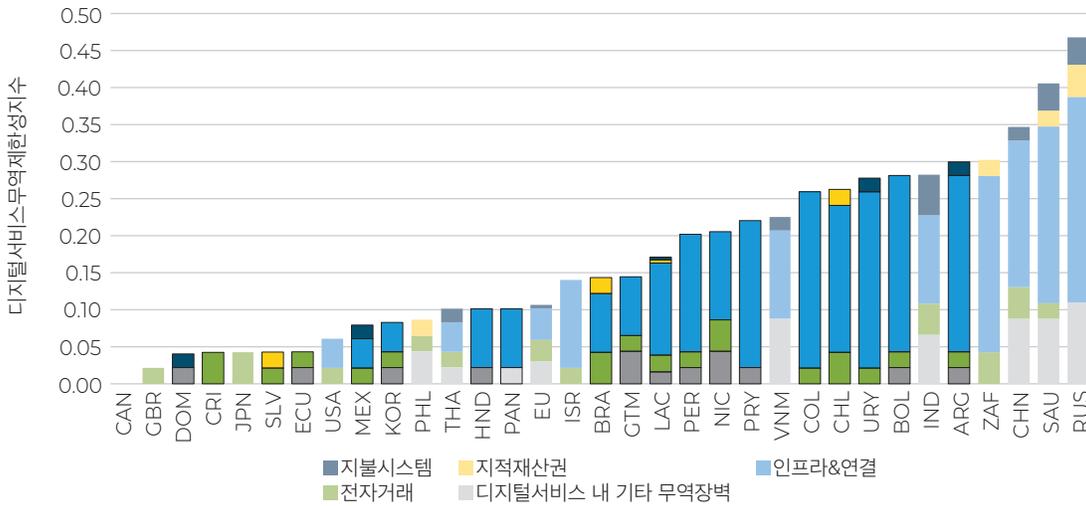
변화하는 글로벌 질서 속 외국인직접투자(FDI)

외국인직접투자(FDI)는 한-중남미 간의 강력한 경제관계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축이다. 2022년 한국의 해외투자는 630억 달러로 전례 없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견고한 투자 추세는 2023년에 510억 달러로 눈에 띄게 둔화되었다([그림 2.12], 패널 A). 역사적으로 한국은 중남미에 대한 주요 투자국으로, 중남미에서 한국으로 유입되는 투자액을 훨씬 상회한다.

원자재 호황에 힘입어 한국의 대 중남미 FDI는 2010년대 초반에 급증하여 2011년에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무역 흐름과 마찬가지로 투자는 나머지 10년 동안 감소세를 보였다.¹³ COVID-19 팬데믹은 전환점이 되어 2023년에 31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한국의 FDI가 다시 한 번 급증했다. 이러한 회복세는 중남미의 경제적 잠재력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신뢰가 다시금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13 See Mesquita Moreira et al. (2022b).

■ **그림 2.11**
디지털 서비스 무역제한지수 (2023년)



Source: IDB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with data from OECD – Digital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참조: 이 지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은 디지털 기술을 통한 무역에 대해 개방적인 규제 환경을, 1은 완전히 폐쇄된 규제 체계를 뜻함. LAC 및 EU의 수치는 각 나라의 단순 평균으로 계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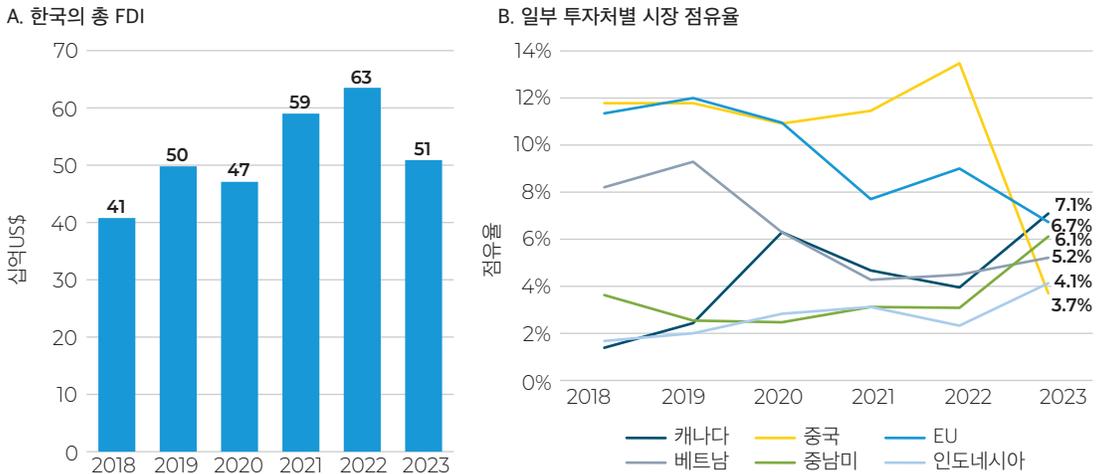
2023년에는 한국 FDI의 투자처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국의 주요 투자 대상국이었지만, 그 비중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국제적으로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가치사슬이 재편되면서 중남미에 기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함께 브라질과 멕시코가 2023년 한국의 투자에 주요 시장으로 부상했다([그림 2.12], 패널 B).

[그림 2.13]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중남미 국가 및 부문별로 투자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5개 중남미 국가가 한국 FDI의 대부분인 94%를 유지했다. 브라질이 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멕시코(25%), 페루(22%), 파나마(12%), 아르헨티나(10%)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의 부문별 구성은 국가별로 다소 다른 양상이다.

광업은 페루와 아르헨티나에서 한국 FDI의 주요 투자 대상 분야이다. 특히 전기차와 전자제품의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인 리튬은 아르헨티나에서 중점적으로 투자되고 있다. 한국의 다국적 기업인 포스코는 살타주와 카타마르카주에서 리튬 추출 및 가공에 투자하고 있다. 이는 40억 달러 규모의 투자로 연간 10만 톤의 리튬 제품 생산능력을 갖추고 약 1,900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¹⁴ 이러한 광업 투자는 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를 확보하려는 한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도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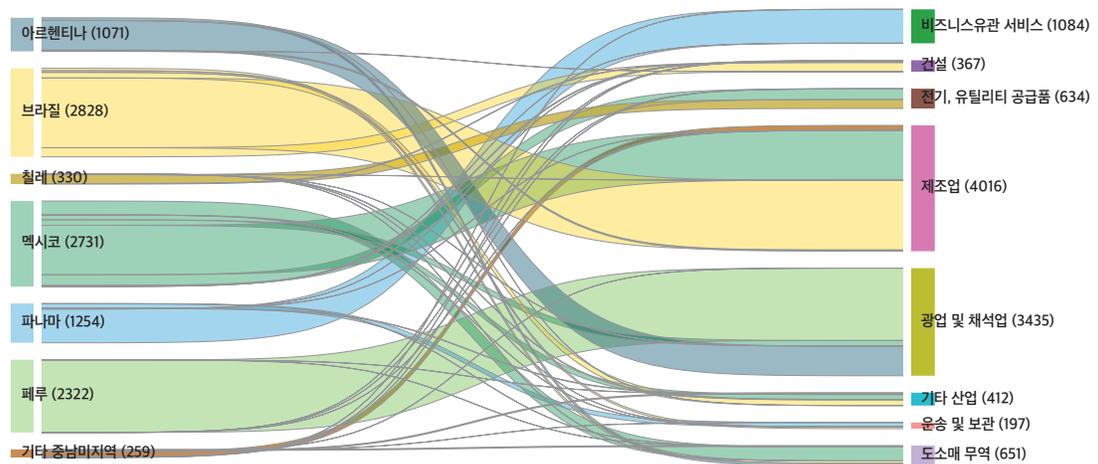
¹⁴ See Reuters (2022) and Mesquita Moreira et al. (2022b).

■ **그림 2.12**
한국의 총 FDI 및 투자처 점유율 (2023년)



Source: IDB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with data from Export-Import Bank of Korea (KEXIM).
참조: 일반적으로 조세 피난처로 분류되는 버뮤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구안(괌), 거니(건지 섬), 아일 오브 맨, 저지, 룩셈부르크, 마셜 제도는 고려되지 않았음. 미국은 한국 FDI의 가장 큰 투자처 (2018년-2023년 평균 점유율이 40%)이나, Panel B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그림 2.13**
국가 및 부문별 한국의 대 중남미 FDI (2018년-2023년)



Source: IDB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with data from Export-Import Bank of Korea (KEXIM).
괄호 안 수치: 백만US\$.

제조업은 브라질과 멕시코에 대한 한국의 주요 FDI 대상 분야이다. 멕시코의 활기찬 자동차 산업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참여와 미국과의 근접성으로 인해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많은 한국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SECO 서진오토모티브가 전기차 전용 파워트레인 공장에 3억 달러를 투

자하고, 경신홀딩스가 전기차 배터리 모듈, 전자카드, 배선장치를 생산하는 공장 3곳에 4,5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¹⁵ 포스코는 아르헨티나 리튬 업스트림 탐사 투자뿐만 아니라 멕시코에 1억 달러 규모의 전기모터 부품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제2의 전기차 부품 공장 건설을 계획하는 등 중남미 지역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¹⁶ 현대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전기 및 친환경 수소차 기술에 중점을 두고 2032년까지 1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브라질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관찰된다.¹⁷

전반적으로 제조업과 광업이 전체 대 중남미 한국 FDI의 69%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중 상당부분이 친환경 가치사슬에 투자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역내 뿐만 아니라 제3국의 탈탄소화 노력에 동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중남미 지역의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 청정기술 보급,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주요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다른 분야에서도 여전히 상당한 성장 잠재력이 있다. 중남미는 재생에너지로의 글로벌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청정에너지 생산의 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또한 이 지역의 넓은 산림은 탄소상쇄 시장과 재 조림 프로젝트에 막대한 기회를 제공한다.¹⁸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중남미는 이러한 이점을 자연스럽게 활용하여 청정에너지 전환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유망 분야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더욱 많이 유치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두 지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중남미는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국은 청정에너지원과 탄소상쇄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통해 두 지역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다.

¹⁵ El Economista (2024) and Investment Monitor (2023).

¹⁶ SteelOrbis (2024).

¹⁷ Agência Brasil (2024).

¹⁸ Bastin et al. (2019).

3. 한국-브라질: 오랜 관계를 활용하자

한국과 브라질은 2024년에 수교 65주년을 맞이한다. 브라질은 중남미 국가 중 한국과 최초로 수교한 국가로 5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1969년 수교 이후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과학기술, 교육, 문화 분야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¹⁹

최근 몇 년간 무역 및 투자 관계가 추진력을 잃고 있고 한-MERCOSUR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주요 이견을 극복하지 못했지만, 특히 양측 정책 입안자들의 최우선 과제인 가치사슬의 복원력, 청정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분야의 무역 및 투자에 있어 상당한 기회를 계속 갖고 있다. 이러한 기회는 무역 및 투자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부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과학 및 기술, 교육 등의 분야에서 여러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온 협력 분야로도 확장된다.

양자 간 상품 무역: 호황은 끝났고 회복이 눈앞에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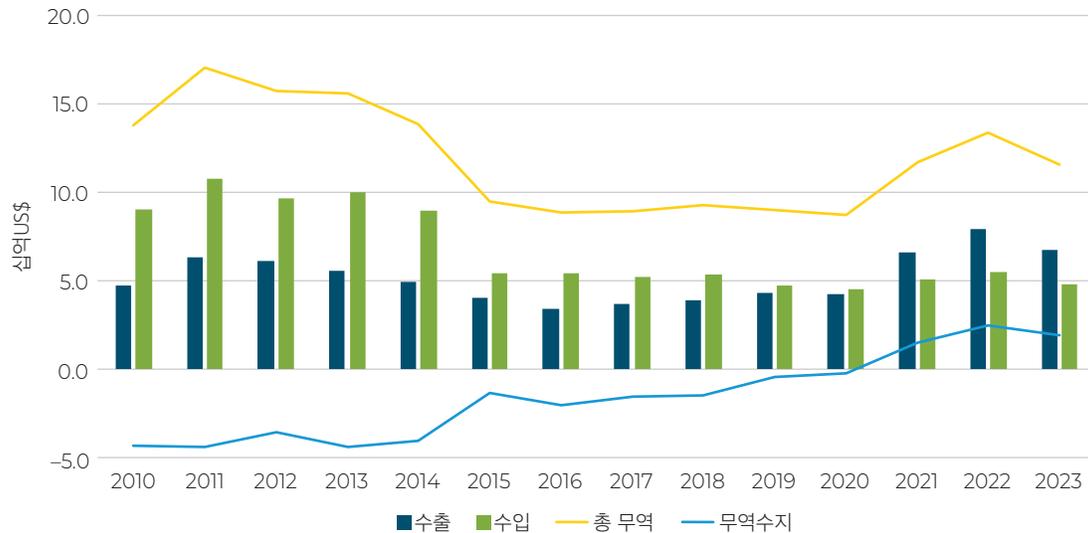
2010년 이후 양국 간 상품 무역은 양국, 특히 한국과의 관련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는 2011년 정점에 도달한 후 크게 둔화되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91억 달러로 감소하여 이전 기간(2010~2014년)의 연평균보다 거의 30% 감소한 수준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COVID-19 이후 양국 간 교역이 106억 달러를 돌파하며 반등했다는 점이다([그림 3.1]).

이러한 수치의 이면에는 두 지역의 성과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 브라질의 수출은 2012년-2020년 평범한 실적을 보였으나 2021년 이후 상당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수출도 둔화를 경험했지만 브라질과 달리 아직 크게 회복하지 못했다. 2023년에는 2010년에 비해 46.5%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 차이에서 그나마 다행인 점은 양국 간 무역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 이후 한국의 대규모 흑자 폭이 크게 줄어들면서 2021년부터는 적자로 전환되었다.

한국 수출의 역동성 상실은 브라질이 타겟 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을 잃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브라질에 대한 상품 공급자로서의 중요성이 감소하는 데도 영향을 주었다. 전자의 경우 2010년 2%에 육박하던 비중이 2023년 0.7%로 크게 감소했다([그림 3.2]). 후자는 2010년 5%에 가까웠던 것이 2023년에는 2.0%로 떨어졌다([그림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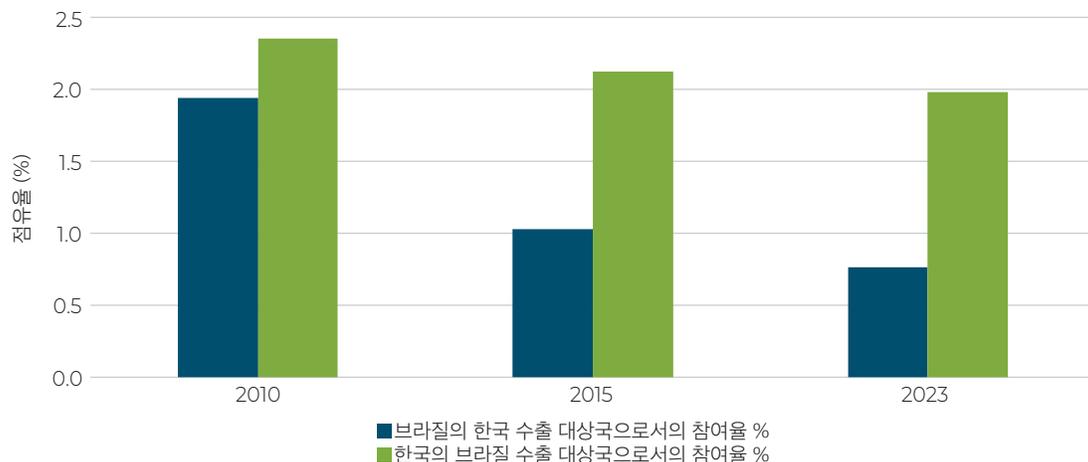
¹⁹ See [Ministério das Relações Exteriores \(2024\)](#).

■ **그림 3.1**
브라질-한국 총 무역, 수출입 및 무역수지 (2010년-2023년)



Source: IDB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with data from ITC TRADE MAP.
참조: 브라질로부터 보고된 데이터를 사용함.

■ **그림 3.2**
브라질-한국간 파트너 국가의 총 수출 내 점유율 (2010, 2015,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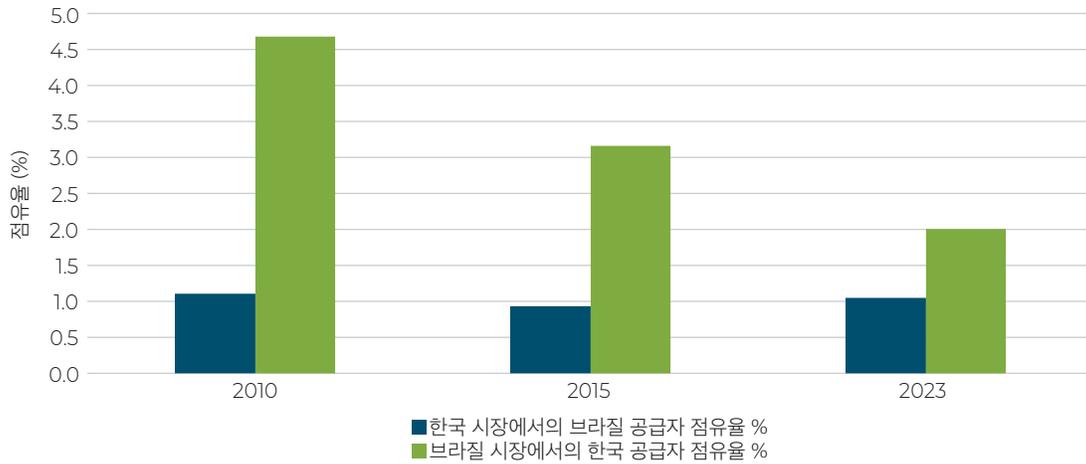


Source: IDB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with data from ITC TRADE MAP.
참고: 무역거래.

브라질의 수출에서도 덜 강조되기는 하지만 비슷한 추세가 관찰된다. 한국은 브라질 제품의 목적 시장으로서의 참여도가 2010년 2.35%에서 2023년 1.98%로 감소한 반면, 한국 수입에서 브라질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 기간 동안 변동이 거의 없이 1% 내외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 **그림 3.3**

브라질-한국간 파트너 국가의 총 수입 내 점유율 (2010, 2015, 2023년)



Source: IDB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with data from ITC TRADE MAP.
참고: 무역거래.

상호보완성

한-브라질 간 무역은 양국 경제의 뚜렷한 상호보완성을 반영한다. 브라질의 대 한국 수출은 자본재와 중간재가 무역 흐름을 지배하고 있다.

2023년 브라질의 대 한국 수출은 상위 10개 품목이 브라질 수출의 90.8%를 차지할 정도로 소수의 상품군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집중도는 지난 10년간 증가 추세에 있다. 2015년과 2010년에는 이 지표가 83.7%와 85.2%였다([표 3.1]). 2023년 기준 10대 수출 품목 중 공산품은 단 한 품목도 없었으며 2개는 중간재(철과 비제조 철강 및 셀룰로스)였고, 나머지는 1차 산물, 농산물 또는 광물 제품이었다.

조사 기간 동안 석유, 곡물, 육류의 세 가지 상품이 두각을 나타냈다. 2010년에는 이 세 가지 제품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46.3%로 늘어났다. 곡물과 육류는 2015년부터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석유는 최근에 확대되어 2023년에 23.5%까지 점유가 늘어났다. 음료와 (사료용) 식품 폐기물 등 눈에 띄지 않는 다른 농산물도 이 기간 동안 비중이 증가했지만 전체 수출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광물 제품(광석, 철, 철강)의 비중은 감소했다. 2010년 전체 수출의 61%였던 광물 제품의 비중은 2023년 21%로 떨어졌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수출품 구성은 놀라운 안정성을 보여준다. 2023년 상위 10개 품목 중 8개 품목은 2010년에도 같은 순위에 포함되었던 품목이다. 예외는 유기 화학 물질과 면화로, 2010년 순위에는 포함되었지만 2023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2023년 순위에서 1, 2위를 차지한 석유와 곡물은 2010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품목이다.

■ 표 3.1

브라질의 대 한국 수출 상위 10개 제품 그룹 (2010년, 2015년, 2023년)

상위 10개 제품 그룹	2010		2015		2023	
	값 (백만 US\$)	%	값 (백만 US\$)	%	값 (백만 US\$)	%
27 광물(화석) 연료, 오일 및 그들의 증류 제품	8	0.2	9	0.2	1578	23.5
26 광석, 슬래그 및 재	1904	40.4	1173	28.9	1120	16.7
10 곡물	90	1.9	658	16.2	1074	16.0
23 식품 산업의 잔여물 및 폐기물; 가공된 동물 사료	320	6.8	396	9.7	623	9.3
2 고기 및 식용 부산물	83	1.8	185	4.6	461	6.8
12 유지 종자 및 유지 과일; 곡물, 종자, 약용 식물 및 사료	190	4.0	329	8.1	365	5.4
72 철강	972	20.6	313	7.7	283	4.2
47 목재 또는 기타 재료의 펄프; 재생 용지 또는 판지	315	6.7	172	4.2	270	4.0
9 커피, 차, 마테 및 향신료	62	1.3	88	2.2	205	3.1
22 음료, 주류 및 식초	71	1.5	74	1.8	130	1.9
기타	767	16.3	738	18.2	746	11.1
총계	4712	100	4059	100	6724	100

Source: IDB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with data from [ITC TRADE MAP](#).

한국의 대 브라질 수출([표 3.2])도 크게 몇 가지 품목에 국한되어 있는데, 상위 10개 품목이 2023년 수출액의 90%를 차지해 2010년과 2015년과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브라질 수출과는 달리, 자본재(기계 및 전자), 중간재(화학-제약 체인, 2023년 10대 품목 중 4개 품목, 철강), 그리고 소비재(자동차)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국의 대 브라질 수출이 크게 감소한 것은 주로 전기 전자제품 및 장비, 기계 및 기계 장비, 그리고 내연 자동차에 집중되어 있다. 자동차의 경우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약 75% 감소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한국 기업의 브라질 내 자동차 제조 현지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²⁰ 타 상품의 경우 같은 기간 수출이 약 40% 감소했다. 이 세 가지 제품을 합치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6.6%에서 56.5%로 감소했다.

²⁰ Marco Press(2012).

■ 표 3.2

한국의 대 브라질 수출 상위 10개 제품 그룹 (2010년, 2015년, 2023년)

상위 10개 제품 그룹	2010		2015		2023	
	값 (백만 US\$)	%	값 (백만 US\$)	%	값 (백만 US\$)	%
85 전기 기계 및 장비 및 그 부품; 음향 및 텔레비전 장비 및 그 부품	2622	29.0	2098	38.7	1499	31.0
84 원자로, 보일러, 기계 및 기계 장치 및 그 부품	1133	12.5	707	13.0	695	14.4
87 철도 또는 트램웨이 차량을 제외한 차량 및 그 부품	2264	25.1	956	17.6	532	11.0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353	3.9	413	7.6	438	9.1
72 철강	504	5.6	149	2.7	296	6.1
30 의약품	52	0.6	90	1.7	238	4.9
90 광학, 사진, 측정, 의료 또는 수술 기기 및 기구; 그 부품 및 액세서리	358	4.0	134	2.5	213	4.4
29 유기 화합물	92	1.0	128	2.4	178	3.7
38 기타 화학 제품	9	0.1	42	0.8	129	2.7
27 광물(화석) 연료, 오일 및 그들의 증류 제품	800	8.9	32	0.6	126	2.6
기타	852	9.4	671	12.4	483	10.0
총계	9039	100.0	5421	100.0	4827	100.0

Source: IDB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with data from [ITC TRADE MAP](#).

반면 화학 및 의약품은 수출액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증가했다. 2010년 한국의 수출에서 5.6%에 불과했던 플라스틱, 의약품, 유기화학제품, 기타화학제품은 2023년 20.4%로 그 비중이 확대되었다. 절대 금액으로 보면, 이들 4개 제품군의 수출액은 5억 6,600만 달러에서 9억 8,300만 달러로 94% 증가했다(같은 기간 94% 성장).

철, 철강 및 광학 기기의 수출은 이 기간 동안 점유율을 유지했지만 금액으로는 급격하게 감소했다. 반면 석유는 절대적,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수출의 구성은 브라질 수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2010년과 2023년 모두 상위 10위권 내에 8개 품목이 포함되었으며, 2010년에는 포함되었으나 2023년에는 빠진 고무 및 철도 제품과 그 반대의 상황인 각종 의약품 및 화학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교역에 있어 주목할만한 추가적인 특징이 있다:

- 한국 시장이 브라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지만, 상위 10개 품목 중 일부 품목의 경우 한국시장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곡물, 음료(주로 에틸 알코올), (사료용) 식품 폐기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 2023년 브라질 시장은 한국 수출의 0.8%를 차지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의약품으로 전체 수출의 4%에 육박하며, 그보다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기타 화학제품이다.
- 양국의 수입은 일반적인 수입과는 달리 일부 품목에 뚜렷하게 집중되어 있다. 브라질의 경우 전기·전자 제품, 자동차, 철강, 플라스틱 등 4개 품목이 2023년 양국 수입의 57.3%를 차지한 반면, 이들 품목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5.3%에 불과했다.
- 한국의 경우, 브라질로부터 수입의 90.8%를 담당하는 상위 10개 품목은 한국 전체 수입에선 35.7%에 불과했다. 이러한 격차는 특히 광물과 농산물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며, 석유는 예외이다.
- 위와 같은 특징에 따라 한국이 양자 간 수입 상위 10개 품목 중 일부 품목에서 브라질의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10개 품목 중 커피, 곡물, 대두, 식품산업 폐기물, 셀룰로스 등 5개 품목의 2023년 수입 시장 점유율이 15% 이상이다.
- 한국은 상위 10개 품목 대부분에서 브라질 수입 시장 점유율을 잃었다. 특히 전기·전자, 자동차, 광학 기기 부문에서 손실이 컸다. 이 세 가지 제품을 합하면 2010년에는 양국 수입의 29.5%를 차지했지만, 2023년에는 10.9%로 감소했다.

제3국과의 경쟁

조사 대상 3년 중 최소 2년(2010년, 2015년, 2023년) 동안 브라질은 2023년 양국 간 수출 관련 10대 품목 중 8개 품목에서 한국 시장의 4대 주요 수출국 중 하나로 부상했다. 석유와 철강은 예외이다.

5대 식물성 제품 중 브라질은 한 품목(곡물, 2010년)을 제외하고 모든 품목에서 항상 4대 주요 수출국 중 하나였다. 이 5대 제품에 있어 브라질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23년 8%에서 23% 사이이다. 이 중 4개 품목에서 브라질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시장 점유율이 상승했으며, 3개 품목(커피, 곡물, 폐기물)에서는 2023년 순위가 상승하여 베트남과 콜롬비아(커피), 미국과 호주(유지종자), 미국과 중국(폐기물) 등 경쟁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주요 경쟁국들은 모두 한국과 양자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은 중국, 호주, 베트남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국이다.

조사기간 중 2년 동안 브라질은 육류 및 셀룰로스 주요 수출국 중 4위를 차지했다. 광물 분야에서 브라질은 2023년에 상위 4개국에 들지 못하며 경쟁국(멕시코, 칠레 등)에 자리를 내주었다.

2023년 한국은 대 브라질 10대 수출 품목 중 철강과 전기·전자 기계 및 장비 등 2개 품목에서만 상위 4대 수출국 중 하나였으며,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했다.

이 제품들은 2010년과 2015년 순위에도 등장했으며, 한국은 이 두 해 동안 철강 수출국 중 2위를 유지했다. 전기·전자 기계 및 장비의 경우, 한국은 2년간 수출국 중 2위를 차지했으나 2023년에는 미국과 베트남에 밀려 2계단 하락한 4위를 기록했다. 이 두 제품의 경우 2010년 브라질 수입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약 10%였으나 2023년에는 5%를 조금 넘는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경우 모두 중국의 브라질 수입 점유율이 증가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였다. 2010년 브라질 수입의 12.2%를 차지하며 수출국 중 2위를 차지했던 한국은 2015년과 2023년에 중국과 멕시코에 자리를 내주며 4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한국 자동차의 '이식'(역주, 투자를 의미함)이 이러한 추세의 배경이 될 수 있다. 브라질 시장의 주요 수출국인 아르헨티나와 멕시코가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의 범위 내에서 체결된 양자 협정으로 인해 관세 특혜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3년 브라질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한국 제품 상위 10개 품목에 있어, 3년간 한국의 주요 경쟁국은 미국, 중국, 독일로 나타났다. 이 세 국가의 기업은 10개 제품의 4대 공급업체 순위로 산출된 30개 순위 중 24개를 차지했다.

중국은 한국의 10대 수출 품목 중 8개 품목의 브라질 공급업체 순위에서 1, 2위 중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은 전기 및 전자 장비, 자동차, 철강, 플라스틱, 유기 화학 제품 및 각종 화학 제품에서 특히 큰 폭으로 브라질 수입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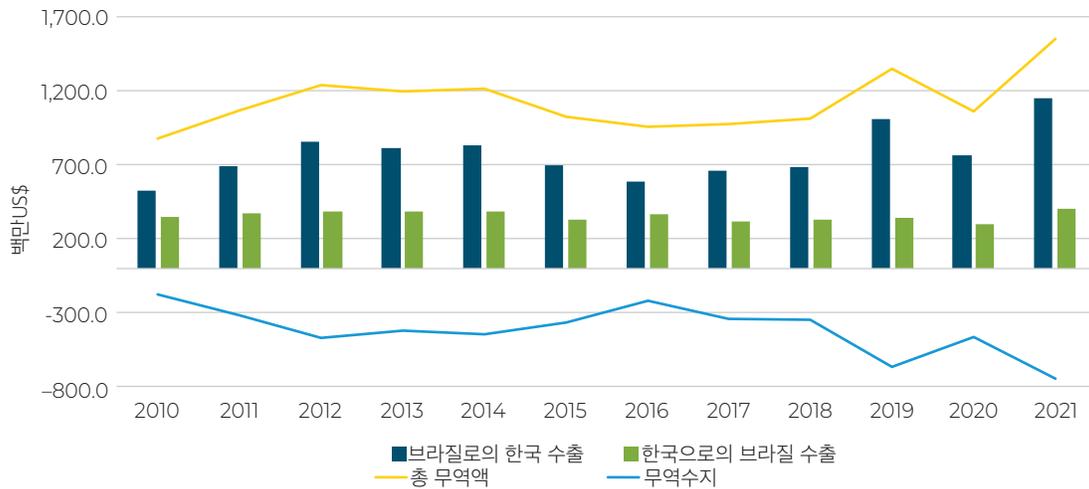
양국 간 서비스 무역: 회복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회복탄력성

상품과 마찬가지로 양국 간 서비스 무역도 지난 10년 기간의 초기엔 역동성을 잃었지만, 2010년부터 2021년(데이터 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까지 연평균 11억 2천만 달러로 회복세를 보였다([그림 3.4]). 또한, 포스트 COVID-19 시대에 서비스 무역이 회복세를 보이며 2021년에 16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낙관적인 전망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의 지속가능성 여부는 최근 데이터가 나오면 확인이 필요하다.

이 기간 동안 양국 간 무역수지는 수출의 3분의 2를 차지한 한국에 유리했다. 브라질의 대 한국 수출은 연평균 3억 5천만 달러 내외의 안정세를 보인 반면, 한국의 수출은 변동성이 더 컸다. 2019년과 2021년 사이의 성장이 양국 간 교역량 증가를 설명하는데, 이 기간 동안 한국의 수출은 양국 교역의 75%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5개 분야가 2021년 한국 대 브라질 수출의 86%를 담당했다. 이 품목은 또한 한국의 대 세계 서비스 수출을 주도했다. 한국의 대 브라질(서비스)수출의 거의 절반(49.4%)은 운수업이고,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17.4%), ICT(7.4%), 여행(6.4%), 지적재산권(IPR)(6.5%)이 그 뒤를 이었다. 운송 및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 **그림 3.4**
브라질-한국 간의 서비스 무역, 수출입 및 무역수지 (2010-2021년)



Source: IDB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with WTO data from BaTIS (Balanced Trade in Services Datas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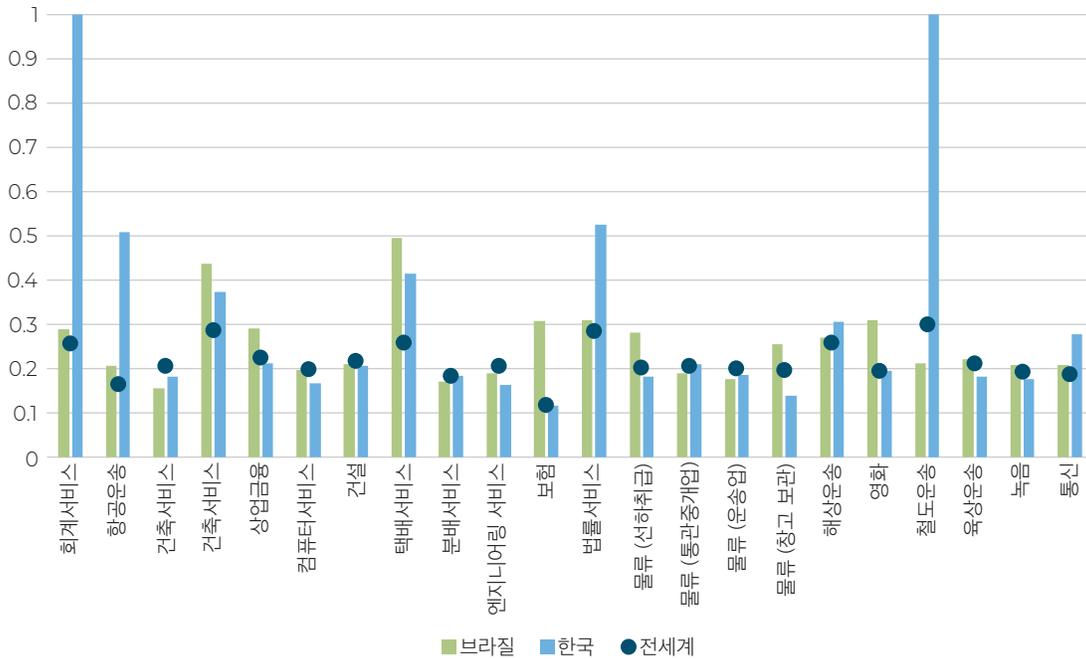
는 2010년~2021년 동안 높은 비율을 유지한 반면, 여행의 비중은 상당히 감소했다. 반면에 지적재산권은 크게 성장하여 같은 기간 동안 그 비중이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ICT는 역동성을 보이고 있는 또 다른 분야이다. 실제로 2010년에 1.4%로 거의 미미한 비중을 차지했던 이 분야는 2021년에는 전체 양국 서비스 수출의 7.4%를 차지하며 3위로 올라섰다.

브라질의 한국 서비스 수출은 운송,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여행의 4대 부문이 주도하고 있고, 이들은 2021년에 대 한국 서비스 수출의 87.5%를 담당했다. 이들 부문은 금융 서비스와 함께 브라질의 대 세계 서비스 수출을 주도했다. 운송은 2021년 대 한국 수출의 36%를 차지한 주요 부문이며,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34%), 여행(13%), ICT(약 5%)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운송 및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는 이 기간 동안 안정적인 점유율을 유지한 반면, 여행은 한국의 수출과 마찬가지로 비중이 감소했다. 반면, ICT는 한국의 수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다.

OECD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에 따르면, 양국의 비교적 높은 무역 제한 수준에 의해 서비스 무역이 저해되고 있다. 양국 모두 컴퓨팅, 건설, 엔지니어링, 유통, 물류를 포함한 10개 부문에서 2023년 세계 평균에 가까운 제한성을 기록했다 ([그림 3.5] 참조).

두 국가의 STRI는 택배 서비스, 방송, 해상 운송(다소 약함)의 세 부문에서 세계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브라질의 STRI는 상업금융, 보험, 물류, 영화의 네 부문에서 한국 및 세계 평균보다 높다.

■ 그림 3.5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 (STRI) (2023년)



Source: IDB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with OECD data.

회계, 법률 서비스, 통신, 항공, 철도 운송의 5개 부문에서는 한국의 STRI가 브라질과 세계 평균보다 높다. 따라서 22개 부문 중 절반 이상에서 한 쪽 또는 양국 모두 서비스 무역에 대한 매우 높은 수준의 제한을 가지고 있다.

양자 간 직접투자: 견인력을 잃고 있는가?

브라질 중앙은행이 최근 발표한 양국 간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의 호황은 끝났다. 사실상 양국 간 FDI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의 FDI(한국에 대한 브라질의 공식적인 FDI 기록은 없음)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2012년에는 연평균 10억 달러, 즉 브라질 전체 FDI의 1.64%를 기록했다. 이후 2013년~2014년에는 투자액이 절반으로 감소했고, 브라질의 FDI 유입액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2022년~2023년에 더욱 두드러져, 이 기간 동안 브라질 전체의 0.13%에 불과한 5,700만 달러로 감소했다.

브라질에 대한 한국 FDI의 부문별 구성에서 제조업이 두드러지는데, 1차 산업이 주를 이루었던 2010년과 서비스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2018년을 제외한 모든 기간에 투자가 진행되었다. 기밀 유지 제약으로 인해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있지만, 가장 많이 투자된 3대 제조업 분야는 자동차, 기계 및 장비, 그리고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이다.

이러한 추세가 실망스러워 보이지만, 최근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직접투자 데이터를 보면 낙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2022/2023년 한국의 양국 간 FDI는 연평균 6억 3,250만 달러(이 기간 동안 양국 간 유입액의 98.3%)로 브라질 중앙은행 수치의 10배 이상에 달했다.

한-MERCOSUR 자유무역 협상: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도구

한국과 브라질은 상대방이 가장 비교 우위에 있는 제품에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를 집중 부과하여 양국 간 무역을 저해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양국의 평균 최혜국대우(MFN) 관세는 브라질 11.1%, 한국 9.8%로 비슷하다. 그러나 한국이 높은 경쟁력을 가진 공산품에 대한 브라질의 관세는 평균보다 훨씬 높다. 브라질이 수출하는 농산물에 대해 한국이 부과하는 관세도 마찬가지이다([그림 3.6]).

■ **그림 3.6**
브라질-한국 양자 최혜국대우(MFN) 가중 관세 (2021년 평균)



Source: IDB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with WTO data.

최혜국대우(MFN) 가중 관세를 고려하면 관세 격차는 더욱 커진다. 브라질의 대 한국 농산물 수출에는 평균 104.5%의 가중 관세가 부과되는 반면, 한국의 대 브라질 공산품 수출에는 9.3%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은 2004년부터 MERCOSUR와 특혜무역협정(PTA) 협상에 관심을 보여왔다. 한국과 브라질은 역사적으로 PTA에 관한 한 서로 반대편에 있었다. 한국은 광범위한 PTA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2010년 현재 12

개의 새로운 PTA가 발효되었으며, 주요 교역 상대국은 미국, 유럽연합, 인도, 중국, 아세안 국가 및 기타 소규모 교역 상대국(페루, 칠레)이다. 또한 한국은 아시아 주요 4개국(중국, 일본, 한국, 인도), 아세안 10개 회원국, 오세아니아 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도 참여하고 있다.

반면 브라질은 PTA 협상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지 않은 국가 중 하나이다. 브라질의 무역 정책은 거의 전적으로 다자간 협상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1990년대와 2000년대 PTA 붐의 한가운데서 벗어나 있다. 브라질은 MERCOSUR 및 기타 남미 국가와의 협정 외에도 경제적으로 무관한 파트너와 일부 PTA를 맺고 있으며, 다른 신흥 경제국(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인도)과는 매우 제한적인(고정 선호도에 기반한) 협정을 맺고 있다.

MERCOSUR의 PTA 실적과 정치경제적 요인은 남미 블록이 한국의 제안에 다소 주저하는 반응을 보인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입장은 한국의 경쟁력에 대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산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현재 한국의 높은 보호 수준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품과 식품의 잠재적 수출 기회를 무시한 것이다.

2009년 한국과 MERCOSUR는 무역투자진흥협약체를 설립했다. 2016년 6월 두 번째 회의에서 양측은 각 당사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지침을 수립하는 예비회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초에는 공동선언을 통해 예비회의가 마무리되고 무역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음을 발표했다.²¹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산업 부문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MERCOSUR 간의 무역 협상은 2018년 5월에 시작되었으며, 이로써 MERCOSUR의 "아시아 여정"이 시작되었다.²² 이번 기회를 통해 협상 진행을 위한 업무범위가 정의되었으며, 이는 현대적인 양자 무역협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초반에 한국의 협상 당국은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는 MERCOSUR 협상자들 사이에서는 공유되지 않았다. 이 협상의 지향점에 대해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민간 부문의 반대는 여전히 강력했다. 2020년 4월 23일, 아르헨티나 산업연합과 브라질 국가 산업연합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MERCOSUR 정부들에게 산업계의 우려를 반영하기 위해 협상 완료 전 자신들과의 협의를 요청했다.

비즈니스 단체의 의사 표명은 아르헨티나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 결정은 2020년 4월 30일 발표된 공포문에서 아르헨티나가 시장접근 협상에서 철수하도록 이끌었다. MERCOSUR 회원국들은 아르헨티나가 제안 교환 및 원산지 규정 협상에는 불참하도록 유연한 메커니즘에 합의했다.²³

21 See Rozemberg et al, (2019).

22 See MERCOSUR (2019).

23 See Pena et al. (2022).

본 보고서 출판 시점까지 일곱 차례의 협상 라운드가 진행되었으며, 그 중 마지막 라운드는 2021년 9월에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다. 상품 무역자유화를 위한 양허안이 교환되었지만, MERCOSUR의 주요 수출 관심 상품인 농업 부문에서는 아직 양허안이 제안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의 관심사인 공산품에 대한 MERCOSUR의 양허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안되지 않았다. 농산물 외에도 위생 및 식물보호 조치가 협상에서 민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은 위생 및 식물보호 조치에 대해 매우 복잡하고 재량권이 강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네거티브 목록 방식에 기초한 서비스 무역자유화 협상을 제안하였으며, 통신, 금융 서비스, 기업 직원의 일시적 입국 등 특정 서비스 유형을 위한 별도 챕터의 포함을 원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에 대한 별도 챕터도 요구했다. 또 다른 논점은, 특히 브라질에 있어 한국이 투자 챕터를 포함하길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투자보장협정(IPPAs)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계획은 2019년 말까지 협상을 완료하는 것이었지만, 현재로서는 협상을 마무리할 구체적 전망이 없다. 양허안 교환의 어려움과 시장 접근 이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MERCOSUR간 양자협정은 글로벌 가치사슬 재구성, 식량안보 문제 및 기후변화 맥락에서의 기회 활용에 기여할 수 있다.²⁴ 무역 장벽을 줄이거나 철폐하고 투자자에게 예측 가능한 규제의 틀을 제공하는 것은 양자 간 협력을 촉진하고 공동 사업 개발 등에 기여할 것이다.

경제 관계를 확대하고 심화할 기회

한국과 브라질은 경제적 보완성을 보이며, 탄소배출 저감과 발전전략에 관한 공통된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은 좁은 땅에 고밀도 인구를 가진 나라로서 순 식량 수입국이다.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에 따른 광범위한 국내정책은 브라질과의 무역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한국은 대규모 다국적 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혁신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는 등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실행에 탁월한 역량을 보여왔다.

브라질은 토지와 자연 자원이 풍부한 대국이다. 농업생산 관행의 발전을 거듭하여 빠른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이룩했다. 현재 브라질은 대두, 옥수수, 커피, 설탕, 오렌지 주스, 쇠고기, 가금류 등 7가지 식품 제품에서 세계 최대의 수출국이다. 현재 브라질의 식량 생산은 9억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 그러나 산업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에서는 아직 미진하다.

세계경제와 산업은 디지털화와 저탄소 경제 전환이라는 두 가지 변화의 힘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두 움직임은 범용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근거하며 경제 생산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브라질은 이러한 변혁적 추진력에서 기회를 잡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²⁴ See Valor Econômico (2022).

한국 및 브라질의 경제 구조 간의 보완성은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장벽 감소, 기술표준과 위생 및 식물보호 조치 상의 규제개혁을 비롯한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협상, 양자 간 직접투자 촉진, 과학기술 협력을 더 효과적이고 항구적인 플랫폼으로의 전환 등을 촉진하여 양자관계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상호이익을 위해 확대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분야가 있다. 그 중 가장 확실한 분야는 무역정책이다. 무역 장벽 감소를 위한 노력은 양국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더 중요하게는 식량안보를 제공하고 탄소저감을 촉진하여 양국 국민의 웰빙에 기여할 수 있다.

식품 제품 무역

브라질의 대 한국 주요 10대 수출 품목 중 곡물, 음료, 커피, 고기 및 오일 씨앗의 5가지는 식품 제품이다. 이 제품에 있어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수출국이다. 식량안보와 안전에 관한 우려는 한국의 수입 관세 및 위생 및 식물보호 조치와 관련된 정책을 유지하는 주요 요소이며, 이는 브라질의 대 한국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표 3.3]).

한국이 브라질의 식품 수출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춘다면, 이는 브라질 수출뿐만 아니라 주로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표 3.3
브라질의 양자 간 상위 식품 수출품에 대한 한국의 관세 평균 및 최대값(%) (2023년)

상위 HS코드	평균	최대값
10 곡물	329.1	800.3
22 음료, 주류 및 식초	19.4	270
9 커피, 차, 마테 및 향신료	38.8	513.6
2 고기 및 식용 부산물	22.7	40
12 유지 종자 및 유지 과일; 곡물, 종자, 약용 식물 및 사료	31.9	754.3

Source: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 WITS.

이는 나중에 다루겠지만 식품안전 협력을 심도 깊게 확장함으로써 보완되어야 한다.

에너지 전환

한국은 국가경제의 녹색전환을 위한 국가 전략을 초기에 채택해왔다. 한국 정부는 2009년에 ‘녹색성장전략’을 발표했으며, 이는 기후변화 완화, 에너지 자립 증진,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9년에 시작된 5개년 계획도 ‘녹색화’된 기존 산업 및 신규 산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녹색기술 및 산업에 투자하는 금융수단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 녹색 기업 및 프로젝트를 위한 공공 재원 확대, 녹색 기업에 대한 정부 보증 확대 등이다.

이러한 자금 지원은 기술 및 환경영향, 경제적 실현가능성 및 녹색화 정도와 관련된 기준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의해 ‘녹색인증서’를 받은 기업, 프로젝트 및 기술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다. 녹색 기업은 인증된 녹색 기술이 매출의 30% 이상을 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도(ETS)는 아시아 최초의 국가배출권 의무감축 제도였다. 한국의 장기적 목표는 2030년까지 기존 배출 전망치 시나리오(BAU)에 비해 37%의 감축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농업을 제외한 경제의 주요 부문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2020년에 한국정부는 국내 수소 시장 개발, 녹색 인프라, 탄소배출 저감기술 연구 지원을 위한 600억 달러 규모의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브라질은 현재 녹색전환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규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ETS 정의, 녹색 수소 등을 포함한다. 또한 국가는 녹색 전환 요소를 갖춘 산업 정책을 채택해왔다. 탄소배출 감소 전략 분야에서의 협력은 한국의 경험과 모범사례를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여 브라질이 이 분야에서 진전을 이룩하는데 혜택이 될 수 있다.

무역정책 측면에서, 브라질의 탄소배출 감소 노력은 OECD가 정의한 환경친화적 상품에 대한 낮은 수입 관세로 인해 혜택을 입을 수 있다.²⁵ 현재 한국의 환경상품 수출은 브라질의 총 수입 중 1.8%에 그치며, 이는 2022년에 전 세계 환경상품 수입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2.7%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다([표 3.4] 참조). 이러한 낮은 비율은 몇 가지 하위 상품 범주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브라질은 목록 내 대부분의 제품에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브라질의 탄소배출 감소 노력은 이러한 제품의 수입을 늘리는 양자 무역관계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ICT 상품 및 서비스 무역: 디지털화의 길

브라질이 디지털화의 최전선에 자리 잡는 방식은 국제화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관세, 비관세, 세금, 이민 정책은 브라질의 국제무역 참여와 투자 중심지로서 부상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디지털화로 나아가는 길에서 중요한 메커니즘 중 하나는 첨단기술 접근이다. 컴퓨터 및 통신 장비는 필수불가결하며, 이 범주의 제품에 대한 관세철폐는 1996년 WTO 정보기술협정(IT Agreement, ITA)이 체결된 이후 참여했던 82개국의 정책 우선 사항이다. 이는 컴퓨터, 통신 장비, 반도체, 소프트웨어, 과학 장비 및 대부분의 부품을 포함하여 관세를 철폐하고 통합하는 다자간 협정이다.

이 협정은 1996년에 29개국이 체결하였고, 현재 82개국이 참여하며 정보기술 상품 무역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에는 ITA-II로 새로운 세대의 회로, 터치 스크린, GPS 및 의료 장비 등 201개 새로운 제품이

²⁵ See [OECD data](#) based on Garsous (2019).

■ 표 3.4

세계 및 브라질의 환경상품 수입 내 한국 점유율과 브라질의 MFN 평균 관세율 (%)
(2018년, 2022년)

코드 및 설명	2018		2022		브라질 관세율 (2022년 평균)
	% 한국 수출/ 세계 수입	% 한국 수출/ 브라질 수입	% 한국 수출/ 세계 수입	% 한국 수출/ 브라질 수입	
총계	3.1	3.0	2.7	1.8	—
CLEG 환경상품 종합 목록	4.0	2.6	2.7	1.6	10.74
APC 공기 오염 제어	3.7	2.8	3.7	1.9	10.4
CRE 더 깨끗하거나 자원 효율적인 기술 및 제품	0.6	0.6	1.4	2.3	12.1
EPP 최종 사용 또는 처분 특성에 따른 환경 선호 제품	0.5	0.0	0.9	0.0	11.7
HEM 열 및 에너지 관리	1.6	1.5	1.9	2.0	8.5
MON 환경 모니터링, 분석 및 평가 장비	3.0	2.5	3.1	2.0	10.1
NRP 천연자원 보호	7.1	6.8	4.5	7.2	14.9
NVA 소음 및 진동 저감	4.1	1.4	4.4	1.8	12.1
REP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소	5.5	2.5	2.0	1.2	11.0
SWM 고형 및 유해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시스템	6.6	5.7	4.9	3.6	9.3
SWR 토양과 물의 청소 또는 복원	1.1	0.1	0.8	0.3	11.6
WAT 폐수 관리 및 정수 처리	2.7	2.4	2.6	1.1	11.1

Source: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 WITS.

포함되어 협정이 확장되었다. 현재 ITA-III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 단계에서는 로봇, 3D 프린터, 의료 장비, 드론, 새로운 세대의 반도체 및 배터리 저장 기술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²⁶

시간이 지남에 따른 제품 목록의 진화는 기술변혁의 속도와 그 기술이 경제의 다른 부문에 미치는 영향의 깊이를 반영한다. 협상 중인 새로운 목록은 의료 장비의 디지털화와 드론과 같은 최근의 트렌드를 잘 반영한다. 디지털 기술의 보편화 추세를 고려할 때, ITA의 제품 목록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ITA의 초기 회원국 중 하나이지만, 브라질은 아직 이 협정의 일원이 아니다.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ITIF)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1996년부터 2010년까지 ICT 제품 수출에서

²⁶ For details, see WTO.

연평균 10%의 성장을 기록했다. 또한, ICT 산업은 그 기간 동안 한국 경제에서 중요도를 높이며 2011년에는 GDP의 11.2%를 기여했다. ITA는 ICT 제품의 글로벌 양방향 무역 확대에 촉진제 역할을 해왔다.²⁷

ITIF의 다른 연구(2021)는 ITA-III의 효과에 대해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했는데, 브라질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10년간 GDP에 1.62%의 누적 효과를 보였다. 이는 연구 대상 국가들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결과이다.²⁸

브라질이 ITA 제품에 적용하는 평균 관세를 계산해 본 결과,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와 같은 타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높은 관세 보호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ITA에서는 브라질의 평균 최혜국관세율이 11.9%이었고, ITA-II에서는 11.6%이며, ITA-III에서는 13.1%이다.²⁹

브라질의 ITA 가입의 적절성 평가는 본 협정이 정보기술 및 통신장비의 비용을 줄이고, 장비 및 서비스 산업이 가치사슬에 통합되는 계기를 제공하며, 첨단 디지털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브라질의 ITA 가입은 이 협정에 포함된 많은 제품들의 세계적인 생산국 중 하나인 한국과의 경제 관계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이 움직임은 IT 섹터의 관련 서비스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한-MERCOSUR 자유무역협정을 협상하는 것이 양국 간 경제통합을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 협정은 관세 및 기타 무역 장벽을 줄이거나 철폐하고 양자 간 경제 통합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완화할 것이다. 무역자유화 이니셔티브에서 양국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양국의 국가 우선 순위 - 한국의 식량 안보, 브라질의 탄소배출 감소 및 디지털화 - 와 일치한다.

한국-브라질 양자 간 협력

한국과 브라질은 1959년에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이후 30년 동안 많은 한국인들이 더 나은 생활 여건을 찾아 브라질로 이주했다. 대부분이 상파울루에 정착하며 특히 의류 제조에서 소규모 사업을 시작했다.³⁰ 그러나 양국의 경제관계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강화되어, 여러 양자 간 협정이 체결되었고, 공동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양국 대통령들 간의 상호 방문도 이루어졌다.

양자 간 대화

브라질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브라질은 정책 협의 메커니즘, 브라질-한국 포럼, 농업 자문위원회, 과학기술 혁신 공동위원회, 무역 및 투자 촉진 및 산업 협력 공동위원회, 에너지 및 광물 자원 협의 기구 등 다양한

27 See ITIF (2015).

28 See ITIF (2021).

29 See Fernandes (2021).

30 See Guimaraes, L. (2006).

양자 간 대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1996년에 시작된 정책 협의 메커니즘은 양자 간 주요 의제와 대외 정책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하는 핵심 포럼으로, 가장 최근에는 2021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번째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³¹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과 브라질은 무역 및 투자 촉진 및 산업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의 협력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중단되었다. 현재는 양자 간 협력을 강화할 새로운 기회가 있다.

2023년 11월, 브라질의 개발, 산업, 무역 및 서비스부(MDIC)와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MoTIE)는 무역 및 투자 협력을 위한 협의회 설립을 목표로 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무역원활화, 투자, 기술, 에너지 및 광물 자원, 디지털경제, 녹색 전환, 바이오 경제 및 고품질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협력이 예상된다. 특히 녹색 수소를 중심으로 한 녹색 전환을 위한 협력이 강조되었다.³² 전 세계 탄소 저감 위기는 브라질에게 기회일 수 있다.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규제, 기술 및 혁신의 모범 사례를 활용하여 이러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2023년에는 브라질 연방 및 주정부 공무원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지속가능한 데이터 인프라, 공공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견고한 사이버 보안 조치에 대한 한국정부 기관 및 민간의 접근 방식, 도전과제 및 해결책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 모범사례에 대해 학습한 바 있다.³³

과학기술 협력(S&T):

양국 간 과학기술(S&T) 관련 대화는 외교 관계 초기부터 개최되었지만, 실질적인 협력 및 양자 간 프로젝트 개발은 지난 20년 동안 집중되었다. 과학기술분야는 브라질-한국 양자 관계에 있어 브라질 대외정책의 핵심 요소로 이해된다.³⁴

1991년에는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협력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서 양국은 협력 우선 분야를 정의하고, 공동 프로그램과 활동을 결정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평가할 공동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첫 공동위원회는 2011년 8월에, 무려 20년만에 개최되었다. 그동안 과학기술은 고위급 대화체와 기관 차원의 협정에서 다루어졌고,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그리 많지 않다.³⁵

2015년 양국 간의 과학기술(S&T) 의제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해졌다.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³⁶

-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와 브라질의 과학기술혁신부(MCTI)는 창조경제와 지식기반 사회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31 See [Ministério das Relações Exteriores \(2024\)](#).

32 See [Ministério do Desenvolvimento, Indústria, Comércio e Serviços \(2023\)](#).

33 See [World Bank \(2023\)](#).

34 See [Moreira, T. \(2022\)](#).

35 See [Fink, D. et al. \(2012\)](#).

36 See [Ministério da Ciência, Tecnologia e Inovações \(2024\)](#).

- 브라질 혁신기업진흥협회(Anprotec), 삼성전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CCEI)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브라질 통신부와 한국 MSIT는 공동 프로젝트를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의향서에 서명했다.
- 브라질 국립통신연구소(INATEL)와 한국 정보화진흥원(NIA)은 정보기술 협력 프로그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협력 협정을 체결했으며, 한-브라질 IT협력센터가 2017년 초에 미나스제라이스 주 산타 리타 두 사푸카이에 개소되었다.

현재 브라질 정부의 양자 협력 우선 분야는 ICT 기술, 특히 5G와 사물인터넷(IoT), 반도체, 생명공학, 나노 기술, 그리고 계량학이다.

한국은 2011년 브라질 정부가 시작한 국경없는 과학 프로그램(Program Sciences without Borders)으로 브라질 학생들을 받았던 첫 아시아 국가였다. 약 500명의 브라질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서 수학하였으며, 일부는 대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얻기도 했다.

양국 간의 과학기술협력은 다소 불규칙하지만 몇몇 분야에서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브라질 국립과학기술개발위원회(CNPq)는 한-브라질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공모 사업을 발주했다.³⁷ 이 프로그램은 양국 간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협력 기반의 확대를 목표로 한다. 우선 분야는 보건의료와 바이오에너지에 적용되는 생명공학, 신경과학, 우주 및 천문학이다. 연구 프로젝트는 2년 동안 자금을 지원받는다.

식품 안전 협력

한-브라질 경제협력의 매우 중요한 분야로 양국은 중남미 국가들과 함께 식품안전관리 협력 프로그램의 두 번째 단계를 2023년 말에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단계는 한국에서 시작된 바 있고, 이후 중남미에서 처음 브라질이 개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양국 간 식품 무역과 관련된 안전 정책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주제는 한국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이해, 수입식품을 위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개요 및 현장 검사 체크리스트, 한국 수입 식품안전 관리시스템 및 정책, 그리고 한국 식품 기준 및 규격 등을 포함한다.

이 분야에서의 협력은 시장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양국 간 무역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2024년 4월, 한국의 당국은 브라질의 두 가지 제품 카테고리(동물 사료용 가금류 부산물 및 지방)와 새우 제품의 수출을 허용하며 시장을 개방했다.

³⁷ See [Ministério da Ciência, Tecnologia e Inovações \(2023\)](#).

4. 협력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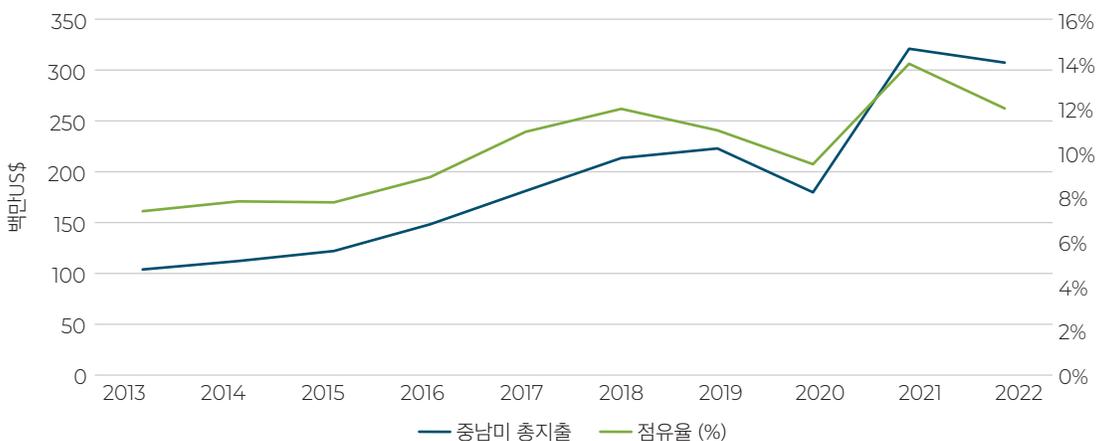
한국과 중남미는 견고한 양자 및 다자간 틀에 의한 정부간 관계를 오래 지속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개발 협력) 공동 이니셔티브는 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한국수출입은행에 의해 추진되며, KOICA는 개발 프로젝트, 기술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무상원조를 제공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은 단독 또는 국제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양허성 차관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체적으로 중남미에 대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에 최고치인 3억 2,100만 달러에 도달했다. 팬데믹 시기에 이전의 상승세가 역전되는 징후를 보였지만, 팬데믹 이후 확대된 중남미의 개발 수요로 한국의 대 중남미 ODA는 급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금(EDCF)은 향후 3년(2024-2026) 동안 13.8조 원(1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승인하여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기금 규모의 증가와 글로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EDCF는 지원 전략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5억 달러 이상의 주요 고부가가치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한국의 가시성을 높이고 수원국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나아가, 공급망 안정화 등 한국의 광범위한 외교 전략과의 통합을 강화하고, 민관협력(PPP) 프로젝트 참여와 민간부문에 대한 직접 금융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민간부문 개발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³⁸

■ 그림 4.1

한국의 대 중남미 순 공적개발원조(ODA) 지출 (2013년-2022년)



Source: IDB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with data from the OECD.

³⁸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2024).

효과성 높은 미주개발은행(IDB)과의 파트너십

한국 정부의 여러 이해 관계자들은 중남미의 무역 및 투자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개발 파트너 역할도 해왔다. 한국은 2005년 IDB의 4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IDB는 한국을 중남미의 정부, 기업, 주요 인사들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왔으며, 한국의 전문 지식, 자금, 혁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전달해왔다.

한국과 IDB의 파트너십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초기에는 매년 열리는 IDB 그룹 연차 총회에서 도출된 우선순위에 맞춰 광범위한 협력의 기초를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다. 목표는 다양한 한국 공공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새로운 개발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 메커니즘을 만들며, 경제 및 외교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고위급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었다. 최근에는 IDB 그룹의 새로운 전략인 '규모와 영향력을 위한 전환' 의제가 중남미의 취약성을 해결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사회 및 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 주력함으로써 파트너십이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다. 이를 통해 전략적 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더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개발 파트너로서 IDB는 지역 및 글로벌 공공재 제공에 기여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투명성과 책무성, 그리고 모든 개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강화 원칙하에 새로운 미션을 다지고 있다.

중남미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개발 금융 제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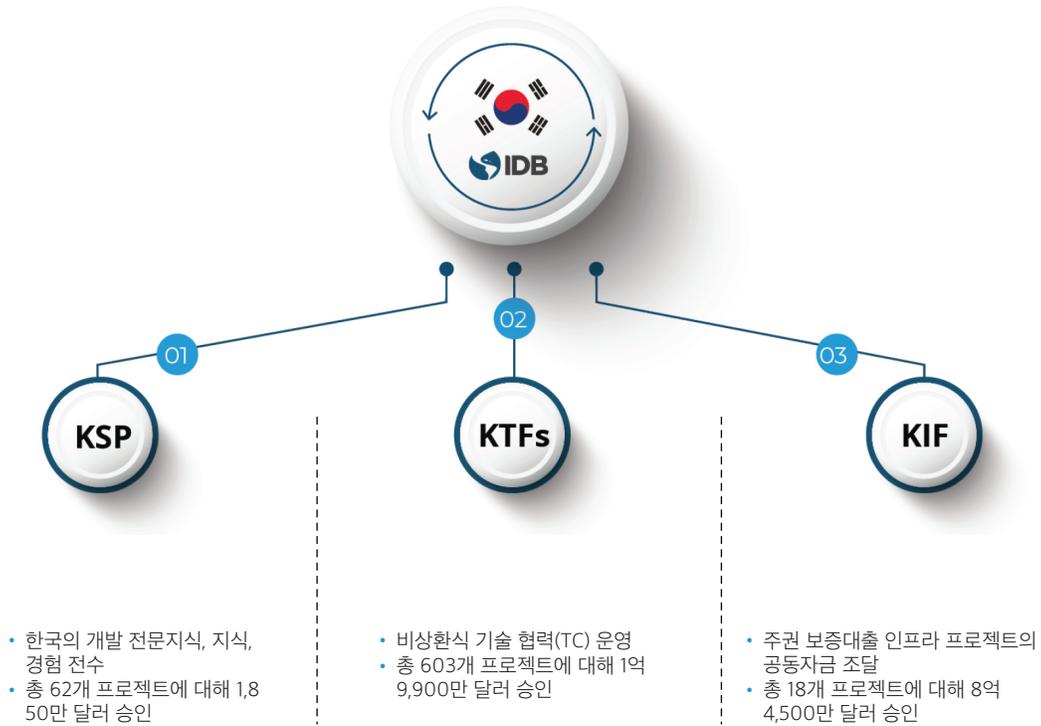
한국은 IDB의 회원국이 된 이후 다양한 중요한 개발 이니셔티브에 재원을 지원하며 중남미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현재 한국은 IDB에서 세 가지 주요 자원 프로그램 및 금융 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1) 지식공유프로그램(KSP), (2) 한국신탁기금(KTFs), (3) 한국인프라개발협조용자(KIF)이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한국이 이 세 가지 채널을 통해 승인한 프로젝트의 총 규모는 10억 6천만 달러에 이른다(KSP를 통해 1,850만 달러, KTFs를 통해 1억 9,880만 달러, KIF를 통해 8억 4,500만 달러).

지식공유프로그램(KSP)

지식의 생성과 전파는 IDB의 개발 업무에서 중요한 축이며, 증거 및 데이터 기반의 정책 자문에 기여한다. 이는 IDB의 새로운 전략에서 지역의 '지식은행'으로 발전하겠다는 약속에서도 강조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채널 중 하나가 KSP다. KSP는 한국이 수십 년 동안 빈곤국에서 선진 지식기반 경제로의 놀라운 전환을 통해 축적한 개발경험, 지식, 전문성을 활용한다. KSP를 통해 한국은 연구, 상담, 기관 역량 강화를 결합한 통합 접근 방식으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공하며 지원을 제공한다.

2011년 IDB-KSP 공동 컨설팅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총 62개의 공동 컨설팅 프로젝트가 1,850만 달러의 예산으로 수행되었다.

■ 그림 4.2
한국-IDB 세 가지 주요 자금 조달원



Source: Korea Funds Guidance Note, IDB.
Note: 보고된 모든 수치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임.

이 프로그램을 채택한 국제기구 및 다자개발은행 중 가장 많은 프로젝트 수를 지원한 것으로, IDB는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활발한 파트너로 부상했다. 주요 부문은 과학기술(22.9%), 교통(13.7%), 공공 부문 현대화(13.5%), 에너지(13.2%)였다.

전반적으로 중남미 국가들은 194개 KSP 프로젝트의 혜택을 받았으며, 이는 KSP가 수행한 708개의 프로젝트 중 27%를 차지하여 아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보인다. 2011년 이후 대 중남미 KSP 프로젝트 수는 국제기구와의 공동 컨설팅 프로그램 시작 이후 크게 증가했다. 지난 3년 동안 파트너십은 매우 강력하게 유지되었으며, IDB는 KSP 파트너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기간 동안 파트너들은 480만 달러 규모의 12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실행했다.

■ 상자 4.1 지식공유프로그램

지식공유프로그램(KSP)은 2004년 한국 기획재정부(MoEF)에서 시작되었고,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수출입은행(KEXIM),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세 개의 조정 및 실행 기관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개발 협력 프레임워크다.

이 프로그램은 세 가지 유형의 협력으로 구성된다:

1. **양자협력:** 정책자문, 실무자 중심의 역량 강화 워크숍, 심도 있는 실질적인 정책 컨설팅을 위한 정책 자문단 파견을 포함한다.
2. **다자협력:** 2011년에 시작되었으며,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 컨설팅 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의 개발경험을 지역/국제기구의 전문성과 결합한다.
3. **한국 개발경험 사례연구:**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핵심 정책, 제도구축 과정, 프로젝트를 담고 있다.

■ 표 4.1 IDB-KSP 공동 컨설팅 프로젝트 (2020년-2023년, US\$)

연도	프로젝트명	대상국	예산규모
2020	기술을 통한 교육 시스템 변혁	엘살바도르	400,000
2020	라 세이바를 위한 스마트시티 전략 설계	온두라스	420,000
2020	원주민 지역을 위한 12개의 미니 그리드 시스템 설계	파나마	440,000
2020	생산적 개발 및 혁신을 위한 제도적 틀 강화	코스타리카	420,000
2020	효과적인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파라과이	440,000
2021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 인터넷 접근 강화	과테말라	300,000
2021	ICT 중요 인프라의 효과적인 배치 및 보호를 위한 조치 개발	엘살바도르	300,000
2021	비즈니스 재설계 프로세스 및 정보 전략 계획에 기반한 플랫폼 설계 및 타당성 조사	코스타리카	500,000
2021	리마를 위한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페루	500,000
2022	필코마요 유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수자원 관리 투자 계획	아르헨티나	500,000
2022	우루과이 에너지 부문을 위한 순배출 제로 전략 지원	우루과이	500,000
2022	상파울루의 도시 이동 데이터 관측소 설계 및 대중 교통 관리 개선	브라질	340,000
2022	2차 공항의 투자 및 관리에 대한 항공 운송 정책 촉진	콜롬비아	300,000
2023	디지털화를 통한 MSMEs 생산성 향상 및 온두라스의 연결성 격차 축소	온두라스	400,000
2023	그레이터 산후안 시 지역의 회복력 있는 경제 발전을 위한 재사용 수자원 관리 계획	아르헨티나	400,000
2023	리마 역사적 도심의 스마트시티 관리 전략	페루	400,000
2023	우루과이의 GH2 산업 개발을 위한 연구 및 개발 활동 촉진	우루과이	400,000

한국신탁기금(KTFs)

한국이 IDB 그룹에 가입했을 때, 최초의 조치는 기술혁신(KPK), 빈곤감소(KPR), 민간부문개발(KPS)을 지원하기 위해 세 개의 한국신탁기금(KTFs)을 만드는 것이었다([상자 4.2] 참조). 2012년에는 공공부문 관리를 목표로 하는 네 번째 기금(KPC)이 추가되었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한국은 IDB의 무상 기술협력(TC) 운영을 위해 총 2억 3,630만 달러를 기여했다.

■ 상자 4.2 한국신탁기금

기술 및 혁신 지식 구축을 위한 한국 파트너십 기금(KPK)은 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한국의 모범 사례, 새로운 아이디어, 교훈을 도입하고 공유하며 전파한다. 2005년 설립된 이후 KPK는 기술 역량, 에너지 인프라, 무역 촉진, 혁신 성과를 위한 기본적인 자금 소스의 역할을 해왔다.

빈곤 감소 및 사회 개발을 위한 한국 기금(KPR)은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불리한 집단을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빈곤감소 및 사회 개발을 지향한다. 2005년 설립 이후 KPR은 소득, 생활 조건 및 사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자금 소스가 되었다.

민간 부문 개발 및 혁신 기금(KPS)은 민간 부문의 개발 및 혁신을 촉진하며, 특히 마이크로 및 중소기업(MSMEs)에 중점을 둔다. IDB Invest의 미션 하에 2005년 설립된 KPS는 중남미 지역 민간 부문에 자문 서비스와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핵심 역할을 해왔다.

공공 역량 강화 및 경제 개발을 위한 한국 기금(KPC)은 중남미 지역의 국가 및 지방 수준에서 공공 부문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사용을 지원한다. 2012년 설립 이후 KPC는 정부가 재정 분야에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투명하게 제도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금명	기금초점	설립연도	한국의 누적 기여금 (백만 US\$)	누적 승인액 (백만 US\$)	총 프로젝트 수
KPK	과학 및 기술, ICT, 에너지, 무역, 교통, IT 인프라	2005	82.8	72.4	160
KPR	교육, 건강, 사회 투자, 농업 및 지방 개발, 물 및 위생	2005	65.5	56.8	155
KPS	비즈니스 혁신, 중소기업 발전, 금융 시장, 공공-민간 파트너십 (PPPs)	2005	40.0	30.7	204
KPC	공공부문 개혁, 재정 관련 분야 역량 강화, 전자 정부, 지역 통합,	2012	48.0	38.9	84

Source: Korea Trust Funds at the IDB Group, 2023.
참조: 상기 표에 보고된 기술협력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임.

한국은 KTFs를 통해 IDB 그룹의 프로그램에 상당한 기여를 하며 재원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빈곤감소와 사회경제 개발을 위한 혁신적 접근 방식을 추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대해왔다. KTFs는 스마트 도시, 주민 등록, 이주와 같은 신흥 분야는 물론 디지털 전환, 혁신성과, 공공 및 시민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술 기반 솔루션 등 한국이 글로벌 리더로서 핵심적으로 포지셔닝 되어있는 분야의 프로젝트들을 지원했다.

이 기금들은 한국을 중요한 지식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26개의 IDB 모든 수원국과 지식을 교환, 전파 및 확산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 한편으로는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증거기반 정보를 제공하여 대규모 후속 프로그램 및 정책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했고, 다른 한편 한국의 전문 지식을 KTFs 지원 사업에 투입하여 추진되었다.

KTFs는 설립 이후부터 효과를 보였고, 운영 방식도 해마다 진화하고 개선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에는 지난 5년 동안 가장 많은 TC가 승인되었으며, 승인 사업도 전년 대비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자원 동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정표가 달성되었다. 2022년-2023년에 한국은 KPK, KPR, KPC에 1,4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기여를 하였고, 2023년 4월에 KPR에 향후 5년간 2천만 달러를 보충하기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KTFs가 필수 불가결한 개발재원으로, 그리고 한국이 중남미에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채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IDB의 새로운 기구 전략에서 강조하고 있는 분야인 지속가능한 디지털 물리적 인프라, 기후변화, 인적자원 개발 분야에 동참하여, 한국은 디지털 경제,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인프라 및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관심분야와 긴밀히 일치시키기 위해 다각도의 지원을 시행하고 KTFs의 다면성을 계속 활용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KTFs는 협력을 강화하고, 기관들의 전략간 일치를 통해, IDB에서 한국의 소중한 기여의 가시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들은 한국과 IDB 간의 파트너십이 진화하고 혁신하며 성장할 수 있는 주요 플랫폼으로 기능하여, 중남미 지역의 시급한 우선 과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개발효과성을 촉진할 것이다.

한국인프라개발협조용자 (KIF)

2015년 3월 28일 설립된 KIF는 국가보증(SG) 차관에 대한 협조용자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중남미의 빈곤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IDB의 미션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기금은 최대 19억 달러로 기획재정부(MOEF) 기여를 통해 설치되었으며, 1단계 1억 달러, 2단계 3억 달러, 3단계 5억 달러, 2023년 12월에 서명된 10억 달러의 추가 재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2023년의 대규모 추가 출연은 이전 단계의 누적 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한국과 IDB 그룹 간의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발전했음을 시사한다. KIF 자원은 핵심 개발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의 협조용자에 활용되었다. 설립 이후 KIF는 총 8

■ 표 4.2
2023년에 KTFs가 승인한 IDB 프로젝트

프로젝트 번호	프로젝트명	섹터	승인 금액 (US\$)
AR-T1304	아르헨티나의 극한 기후 사건에 대한 회복력 증대 지원	물 및 위생	600,000
AR-T1321	아르헨티나의 경쟁력 개발을 위한 디지털 연결성 계획	과학 및 기술	600,000
BA-T1089	바베이도스의 전자 이동성 전환 가속화	에너지	450,000
BH-T1100	바하마 공공 인프라의 기후 회복력 진단 및 완화 계획	교통	120,000
CO-T1729	위험 관리와 연계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지침	도시개발 및 주택	350,000
CR-T1263	디지털 기술과 성별 초점을 통한 21세기 기술 개발을 위한 혁신	교육	600,000
CR-T1271	코스타리카 공항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무역	500,000
DR-T1272	도미니카 공화국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결성 개선 프로그램 지원	과학 및 기술	500,000
EC-T1521	에콰도르의 효율적인 공공 자산 관리 시스템 개발	국가 개혁 및 현대화	390,000
NI-T1320	성별 및 다양한 배경 간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차별화된 교육	교육	550,000
PE-T1510	페루 과학, 기술 및 혁신 공공 기관의 강화를 위한 지원	과학 및 기술	500,000
RG-T4143	한국-중남미 기술단 프로그램	국가 개혁 및 현대화	2,050,000
프로젝트 번호	프로젝트명	섹터	승인 금액 (US\$)
RG-T4221	한국 사례를 기반으로 한 중남미의 고형 폐기물 및 수자원 부문 통합 솔루션을 위한 정책 개발	물 및 위생	500,000
RG-T4234	지속 가능성 성과 이니셔티브	민간 기업 및 중소기업 개발	700,000
RG-T4308	중남미 백신 및 바이오제품의 개발 및 제조를 위한 기술 및 역량 강화	보건	550,000
RG-T4309	K-중남미 혁신 및 무역 포럼 2023	기타	1,000,000
RG-T4318	중남미에서 공공 투자 시스템 현대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공공 투자 촉진	국가 개혁 및 현대화	500,000
RG-T4322	정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디지털 기술 채택 가속화	국가 개혁 및 현대화	600,000
RG-T4340	재정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공공조달 혁신: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의 한국 경험	국가 개혁 및 현대화	550,000
TT-T1123	공공 교통의 혼잡 감소 및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스마트 기술 확장	교통	500,000
TT-T1138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기술 이전을 통한 경제 역동성 촉진	민간 기업 및 중소기업 개발	150,000
UR-T1294	중남미 교육의 디지털 전환 지원: 교육 4.0을 향하여	교육	470,000
총계 (22개 프로젝트)			12,730,000

억 4,500만 달러의 18개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며,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누적 집행액은 4억 5,182만 달러에 달한다.

에너지 부문은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그 다음은 과학기술, 수자원 및 위생, 교통, COVID-19 대응 순이다. 이 자금은 수자원 및 위생, 전기, 도로망, 교육 및 보건과 같은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소프트 및 하드 인프라를 모두 포괄한다. 또한 금융 시스템, 교육 시스템, 보건 시스템, 재난 위험 관리 시스템, 무역 및 통합 시스템, 디지털 경제 및 정책, 기후변화 및 농업 관련 프로젝트를 위한 정보 및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제도 시스템과 정책도 포함된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콜롬비아, 볼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는 KIF 자원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들이다.

KIF는 IDB의 새로운 기구 전략과 일치하여, 향후 7년간(2024-2030) IDB 그룹의 지침을 제공하는 로드맵을 제시하며, 소득, 생활 조건 및 사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운영을 통해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의 삼중 및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국가 개혁 및 현대화 관련 활동 지원을 통해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여 생산성 및 혁신과 같은 범분야 이슈에 대응한다.

2023년, KIF는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두 프로젝트를 승인했는데, 에콰도르 에너지 전환 및 투자 촉진 지원을 위한 5천만 달러 정책 차관(EC-L1287)과 볼리비아 농촌 전력 공급 프로그램 3를 위한 1억 달러의 투자 차관(BO-L1222)이다. 이들 프로젝트는 에콰도르 정부의 에너지 전환 노력을 지원하고, 볼리비아에서는 전력 서비스의 보편화를 통해 빈곤 감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표 4.3
KIF 시설 지원 IDB 프로젝트 (2023년 기준)

프로젝트			예산규모	
연도*	번호	제목	총액	KIF
2015	NI-L1090	브로드밴드 프로그램	50,000,000	25,000,000
2016				
	EC-L1160	에콰도르 에너지 매트릭스 전환 지원 투자 계획	160,000,000	25,000,000
	NI-L1094	지역 탐사 및 전송 개선 사업(PINIC)	103,000,000	25,000,000
2017	BO-L1191	도시 수자원 공급 지속가능성 및 회 복탄력성 개선 및 확장 사업	75,000,000	25,000,000
2018	CO-L1233	경제 디지털화 및 연결성 개선 사업	350,000,000	50,000,000
2019				
	PR-L1164	농산업 장벽 회복 및 유지 사업	235,000,000	50,000,000
	HO-L1207	수도권 수자원 및 위생 서비스 개혁 사업	60,000,000	30,000,000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 표 4.3 (계속)
KIF 시설 지원 IDB 프로젝트 (2023년 기준)

프로젝트			예산규모	
연도*	번호	제목	총액	KIF
2020				
	GU-L1171	과테말라 농업 전기화 인프라 사업	120,000,000	60,000,000
	GU-L1175	과테말라의 포용적인 접근을 위한 디지털 전환 사업	70,000,000	25,000,000
	PR-L1175	파라과이 COVID-19-19로 인한 위생 및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정책 및 재정관리 강화 사업	210,000,000	50,000,000
2021	ES-L1145	사회적 디지털 연결성 사업	85,000,000	35,000,000
	DR-L1146	전력 분야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 사업 III	250,000,000	50,000,000
	CO-L1264	지속가능한 성장과 회복탄력성 사업	1,225,756,800	100,000,000
2022	EC-L1253	세금 및 관세 행정 개선 사업	89,000,000	35,000,000
	CR-L1147	녹색 경제를 향해: 코스타리카 탈탄소화 지원 계획 II	407,000,000	50,000,000
	DR-L1158	도미니카 공화국 해안 및 관광 지역 보편적 위생 사업	190,000,000	60,000,000
2023	EC-L1287	에콰도르 에너지 부문의 에너지 전환 및 투자 촉진 지원	500,000,000	50,000,000
	BO-L1222	농촌 전력 공급 프로그램 III	202,000,000	100,000,000
총계 (18개 프로젝트)			4,370,000,000	845,000,000

Note: The year approved by KIF.

KSP, KTFs, KIF의 모범 성공 사례

한국은 IDB 그룹에 설치된 세 가지 재원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부문과 국가에서 지식, 기술협력, 그리고 양허성 차관을 활용하여 다수의 효과성 높은 전환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재정 지원하였다.

KSP: KSP-IDB 성공 프로젝트의 예로는 온두라스 라 세이바의 스마트시티 전략 디자인을 들 수 있다(2020-2021). 이 프로젝트는 라 세이바의 스마트시티 전환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여 도시 행정의 개선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ICT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관광, 교통, 안전에 중점을 두어 필요한 액션 조치들을 식별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도시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한 K-City 모델과 한국 ICT 전문가들의 지식을 활용하였다. 또한 라 세이바의 특성과 요구에 맞춘 스마트시티 정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온두라스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했다.

KTFs: 우선, 교육 부문의 디지털 전환에 관해 KTFs는 코스타리카에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취학 전 유아의 수리력 학습과 수학적 논리적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 테스트하는 사업을 지원했다. 코스타리카 공공교육부와 한국의 SK텔레콤과 협력하여 200개 이상의 학교에서 학습 로

붓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초 프로그래밍 기술을 향상시키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지원했다. 둘째, 농식품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KTFs는 우루과이의 농식품 가치사슬 시스템을 개선하여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COVID-19 이전의 경제성장 수준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했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과의 전략적 지식 파트너십을 통해, 농식품 산업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우루과이에 세계적 수준의 생명공학 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섹터 로드맵을 성공적으로 개발했다.

또한 KTFs 재원은 민간부문과의 협력 확대 및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특히 Korea-LAC 시리즈 이벤트를 지원했다. 이 이니셔티브에는 2022년 제6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및 2023년 K-LAC 혁신 및 무역 포럼이 포함되며, 한국의 역외 무역 및 투자 촉진 경험을 공유하고 한-중남미 간 비즈니스 관계를 강화하며 민간부문에서 협력 기회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고위급 본회의, 주제별 세미나, 스타트업 피치 데이, 그리고 수십억 달러의 거래를 위한 1:1 비즈니스 매칭 미팅 등으로 구성된 Korea-LAC 시리즈는 양자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경로로 계속 활용될 것이다.

KIF: 엘살바도르에서는 한국과 IDB가 사회 디지털 연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개발 우선 순위인 디지털 인프라 개발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00곳에 달하는 학교와 200,000개의 가정을 인터넷에 연결했으며, 600,000명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받았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전력 부문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프로그램에 협력하여 에너지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여 경제에 기여했다. 이 파트너십의 결과로 한국전력공사는 최첨단 전력 분배 변전소를 건설하기로 계약했다.

한국 기관들과의 파트너십

IDB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여러 한국 기관과 협력하며, 주로 파트너십 협정 체결과 세부적인 실행 계획의 개발 및 협상을 포함한다. 주요 파트너로는 한국의 각 부처, 공공기관, 대학 및 민간기업을 포함한다.

2023년, 한국 기관들과의 협력은 다양한 양해각서(MOU), 공동 행사 및 양자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다양한 부문에서 상호 관심사를 발전시키며 IDB와 한국 파트너 간의 유대강화에 기여했다.

35개 한국 기관과의 MOU가 체결되었으며, 여기에는 14개의 부처, 18개의 공공 기관, 2개의 민간 기관, 1개의 학술 기관이 포함된다. 2023년에는 서울보증보험(SGI), 한국거래소(KRX), 조달청(PPS)과 새롭게 세 건의 MOU가 체결되었다. 이러한 협정들은 주요 한국 파트너 기관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지식공유, 기술 역량강화, 컨설팅 서비스, 공동연구를 촉진할 것이다. 특히 SGI와 KRX와의 MOU는 한국과 중남미 간 자본시장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중요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2023년에는 공공정책부터 기술 및 보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총 11개의 중요한 행사가 개최되었다. 여기에는 2월의 차관 프로젝트 온라인 세미나, 4월의 공공조달 정책 워크숍, 4월의 보건 품질관리 워크

숍, 10월의 스마트시티 워크숍, 5월의 한국 기술 몰입 프로그램, 9월의 에너지 효율성 교육 프로그램, 11월의 IDB청년기술인재단 등이 포함된다.

특히 2023년 10월 18일-19일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한-중남미 혁신 및 무역 포럼에는 한국과 중남미 19개국의 고위급 비즈니스 임원 및 공공 부문 관계자 650명이 모여 무역 및 투자 기회를 촉진하고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했다.

한-중남미 이벤트 시리즈는 2005년 한국이 IDB 공여 회원국으로 가입한 후, 2007년 IDB 그룹과 한국 기획재정부(MOEF),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수출입은행(KEXIM)의 협력으로 시작되었다. Korea-LAC 시리즈는 지속적으로 양측의 공공 및 민간 부문 고위 리더들을 모아 무역 및 투자 협력과 기회를 촉진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중남미 지역 국가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참고문헌

Agência Brasil (2024). Hyundai announces \$1.1 bi investment in Brazil. Agência Brasil. Retrieved from <https://agenciabrasil.ebc.com.br/en/economia/noticia/2024-02/hyundai-announces-11-billion-investment-brazil>.

Bastin, J.-F., Finegold, Y., Garcia, C., Mollicone, D., Rezende, M., Routh, D., Zohner, C. M., & Crowther, T. W. (2019). The global tree restoration potential. *Science*, 365(6448), 76–79. <https://doi.org/10.1126/science.aax0848>.

Cevik, S. (2024). Geopolitics and International Trade: The Democracy Advantage. IMF Working Paper No. 2024/021,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P/Issues/2024/02/02/Geopolitics-and-International-Trade-The-Democracy-Advantage-544393>.

El Economista. (2024). Seojin Mobility invertirá 300 millones de dólares en planta en Escobedo, donde producirá motores eléctricos. Retrieved June 18, 2024, from <https://www.eleconomista.com.mx/estados/Seojin-Mobility-invertira-300-millones-de-dolares-en-planta-en-Escobedo-donde-producira-motores-electricos-20240328-0057.html>.

Fernandes (2021). As transições gêmeas e o futuro da indústria brasileira. Centro de Estudos de Integração e Desenvolvimento (CINDES). Retrieved June 18, 2024, from https://cindesbrasil.org/wp-content/uploads/2022/05/breves_cindes_120_as_transicoes_gemeas_e_o_futuro_da_industria_brasileira.pdf.

Fink, D., Hameed, T., So, M., Kwon, Y., & Rho, J. J. (2012). S&T collabor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Lessons from Brazilian collaboration activities with South Korea. *STI Policy Review*, 3(2), 92-110. <https://koreascience.kr/article/JAKO201254447932011.pdf>.

Garsous, G. (2019), "Trends in policy indicators on trade and environment", OECD Trade and Environment Working Papers, No. 2019/01,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b8d2bcac-en>.

Guimaraes, L. (2006). The Korean Community in Brazil: challenges, achievements and prospects.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South Korea.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2021). Draft List of Critical Supply Chains. U.S. Department of Commerce. Retrieved June 18, 2024, from <https://www.trade.gov/data-visualization/draft-list-critical-supply-chains>.

Investment Monitor. (2023). Kyungshin Holdings to create 2,200 jobs with \$45m Mexico investment. Retrieved June 18, 2024, from <https://www.investmentmonitor.ai/news/kyungshin-holdings-to-create-2200-jobs-with-45m-mexico-investment/>.

ITIF (2015). The Case for Expanding U.S.-Korea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 Retrieved June 18, 2024, from <https://www2.itif.org/2015-ita-expansion-korea.pdf>.

ITIF (2021). The Case for Expanding U.S.-Korea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Next Steps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 Retrieved June 18, 2024, from <https://www2.itif.org/2021-ITA-3.pdf>.

LaBelle, J., Martinez-Zarzoso, I., Santacreu, A. M. & Yotov, Y. (2023). Cross-border Patenting, Globalization, and Development, Working Papers 2023-031,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https://ideas.repec.org/p/fip/fedlwp/97470.html>.

MercoPress. (2012). Korean Hyundai begins production at São Paulo plant; target 10% of Brazilian market. MercoPress. Retrieved June 18, 2024, from <https://en.mercoPress.com/2012/09/24/korean-hyundai-begins-production-at-sao-paulo-plant-target-10-of-brazilian-market>.

MERCOSUR (2019). Mercosul e Coreia mais próximos de assinar um acordo comercial. Retrieved June 18, 2024, from <https://www.mercosur.int/pt-br/Mercosul-e-coreia-mais-proximos-de-assinar-um-acordo-comercial/>.

Mesquita Moreira, M., & Stein, E. H. (Eds.). (2019). Trading Promises for Results: What Global Integration Can Do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https://doi.org/10.18235/0001886>.

Mesquita Moreira, M., Blyde, J., Volpe Martincus, C., Dolabella, M., & Marra de Artiñano, I. (2022a). The Reorganization of Global Value Chains: What's in it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DB Working Paper Series N° 01414. <https://doi.org/10.18235/0004592>.

Mesquita Moreira, M., Dolabella, M., Ko, K., Choi, H., Em, H., Choi, S., Kim, Y., Lee, D. S., & Chicola, E. (2022b). Latin America and Korea: Partners for Sustainable Trade and Investment.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https://doi.org/10.18235/0004481>.

Moreira, T. (2021). Ciência & Tecnologia: Brasil-Coreia do Sul. Relações Exteriores. Retrieved June 18, 2024, from <https://relacoesexteriores.com.br/ciencia-tecnologia-brasil-coreia-do-sul/>.

Ministério da Ciência, Tecnologia e Inovação (2024). Cooperação Brasil-Coreia do Sul. Coperação Internacional. Retrieved June 18, 2024 from https://antigo.mctic.gov.br/mctic/opencms/institucional/Cooperacao_Internacional/Bilateral/coreiado_sul.html.

Ministério das Relações Exteriores (2024). República da Coreia. Governo Federal. Brazil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trieved June 18, 2024, from <https://www.gov.br/mre/pt-br/assuntos/relacoes-bilaterais/todos-os-paises/republica-da-coreia>.

Ministério do Desenvolvimento, Indústria, Comércio e Serviços. (2023). Ministérios da Indústria e Comércio do Brasil e da Coreia do Sul restabelecem cooperação formal. Governo Federal. Retrieved June 18, 2024, from <https://www.gov.br/mdic/pt-br/assuntos/noticias/2023/novembro/ministerios-da-industria-e-comercio-do-brasil-e-da-coreia-do-sul-restabelecem-cooperacao-formal>.

Ministério da Ciência, Tecnologia e Inovação. (2023). Chamada Pública CNPq/MCTI/CAPES/MEC/CNPq/FNDCT n° 20/2023 - Mobilização para Pesquisa em Biotecnologia Industrial 2023. Conselho Nacional de Desenvolvimento Científico e Tecnológico (CNPq). Retrieved June 18, 2024, from http://memoria2.cnpq.br/web/guest/chamadas-publicas?p_p_id=resultadosportlet_WAR_resultadoscnpqportlet_INSTANCE_0ZaM&filtro=abertas&detalha=chamadaDivulgada&idDivulgacao=11485.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2024). The 240th Foreign Economic Ministers' Meeting and the 148th Foreign Economic Cooperation Fund Management Committee were held. Retrieved June 18, 2024, from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67559&menuNo=4010100.

Moreira, T. (2022). Ciência & Tecnologia: Brasil-Coreia do Sul. Relações Exteriores. Retrieved June 18, 2024, from <https://relacoesexteriores.com.br/ciencia-tecnologia-brasil-coreia-do-sul/>.

Pena, C., Gayá, R., & Svarzman, G. (2022). El devenir del MERCOSUR: claves internas y externa. Informe MERCOSUR No. 25.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https://doi.org/10.18235/0004450>.

Quantum Commodity Intelligence. (2024). S. Korean duo to cooperate on Article 6 projects. Retrieved from <https://www.qcintel.com/carbon/article/s-korean-duo-to-cooperate-on-article-6-projects-22252.html>.

Reuters (2022). South Korea's Posco to invest \$4 bln in lithium project in Argentina [Reuters]. Retrieved June 18, 2024, from <https://www.reuters.com/world/americas/south-koreas-posco-invest-4-bln-lithium-project-argentina-2022-03-21/>.

Rozemberg, R., Campos, R., Gayá, R., Makuc, A., & Svarzman, G. (2019). Hacia un cambio necesario. Informe MERCOSUR No. 23.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https://doi.org/10.18235/0001732>.

SteelOrbis. (2024). Posco will invest in Mexico in a second auto parts plant for EVs. Retrieved June 18, 2024, from <https://www.steelorbis.com/steel-news/latest-news/posco-will-invest-in-mexico-in-a-second-auto-parts-plant-for-evs-1330816.htm>.

Valor Econômico (2022). Cenário favorece acordo Mercosul-Coreia, diz relatório. Valor Econômico. Retrieved June 18, 2024, from <https://valor.globo.com/brasil/noticia/2022/02/18/cenario-favorece-acordo-mercosul-coreia-diz-relatorio.ghtml>.

Voeten, E., Strezhnev, A., & Bailey, M. (2009).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Voting Data (Version V32). Harvard Dataverse. <https://doi.org/10.7910/DVN/LEJUQZ>.

World Bank (2023). Brazilian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Building Foundation for Resilient Public Data Infrastructure. Retrieved June 18, 2024, from <https://www.worldbank.org/en/programs/kodi/brief/brazilian-visit-to-the-republic-of-korea-building-foundation-for-resilient-public-data-infrastructure>.

World Trade Organization. (2024). Progress on implementation commitments comparison tool.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Database. Retrieved June 18, 2024, from <https://tfadatabase.org/en/implementation/comparisons>.

